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30일)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난치병 환아에게 전한 따뜻한 나눔 선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2회 국내 · 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전달식 및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이자 재단 이사장인 진우 스님은 2억 4000만 원을 국내 · 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으로 전달했으며, 9명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기금을 모금해 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2년 동안 900여 명의 국내 및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약 20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 취임 50일 진우스님 '포교 진흥' 강조

## 16일 조계사서 공개 108배…부 · 실장 스님 등도 참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16일 취임 50일을 맞았다. 취임 50일을 조계종 총무원은 이례적으로 진우 스님의 108배 현장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28일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6시 50분경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개인적 원력으로 시작했기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나 재가 종무원들이 부담될까 알리지 않고 108배를 시작해 그동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공개 108배는 사서실 사서 지현 스님의 죽비에 맞춰 조계사 대웅전에서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 약 30분간 진행됐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침마다 예불을 하지만, 총무원장 소임을 맡게 된 이후 가끔 수행자임을 잊을 때가 왕왕 있다. 그래서 출가 초심을 상기하기 위해 108배를 시작했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108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상기하고 수행 정진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면서 "한국불교가 잘 돼야 국민들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으로 '포교로 세상을 편안케 하겠다'는 원력을 108배를 하며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 모든 중생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포교"라며 "종단에서는 여러 불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불자가 되고, 불자가 됨으로써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길을 열겠다"고 발원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차담에서도 포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우 스님 "취임 이후 50일을 종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불사와 종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며 "포교 진흥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하다"고 안타까워하며 "조상들이 믿고, 신봉했던 우리 불교가 다시 한 번 부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불교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16일 취임 50일을 맞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8배를 하고 있다.

**공개 108배 이후 기자들과 차담**
**"종단 불사 본궤도 올리려 노력**
**불자 부족… 포교 진흥책 고민"**
**열암곡 마애불 立佛로 신심 고취**
**상월결사 법인화, 종단 사업 결합**

제37대 집행부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운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도 '신심 고양'을 위한 종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국민들에게 제안한데 이어,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해당 불사를 제1 종책 과제로 확정했다. 지난 10월 31일에는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을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한 바 있다.

11월 16일 차담에서도 진우 스님은 "아름답게 조성된 부처님을 엎어진 상태로 모시는 것은 후손된 도리도 아니고 불자로서의 자세도 아니다"면서 "부처님의 호상이 정말 아름답다. 바로 모시게 되면 신심 고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마애불을 바로 모시기 위해 불자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일단 모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선조들이 불교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해왔는지, 불교가 국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9일로 다가온 상월결사 인도 순례 참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의 법인화와 종단 등록이 진행돼 종단 사업으로 결합할 수 있다"며 사실상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종단 사업임을 확인했다.

스님은 "입재 참여는 어렵고 회향 무렵에 참여하려 한다. 내년이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와 함께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 불교계, 법계도 왜곡 공분
# 가톨릭에 "사과하라" 촉구

## 스님 · 불자들 1인 시위… 종회의원 항의방문도

한국불교의 수행체계인 법계도를 왜곡 전시한 가톨릭계에 대한 불교계의 비판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진 불교계의 비판에 서소문역사박물관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11월 14일 오후 결국 법계도 왜곡 나전칠화를 철거했지만, 불교계가 가톨릭계에 요청한 공식사과는 없어 이에 대한 불교계의 공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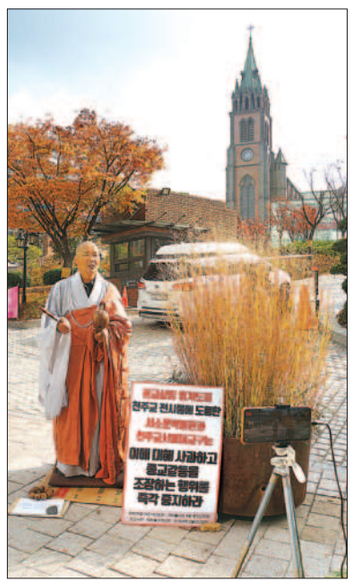
불교계는 신라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가톨릭 상징으로 안내하는 등 무단도용과 왜곡을 일삼은 작품이 서소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것에 반발, 가톨릭계에 꾸준한 철거와 사과를 요청해 왔다.

합천 해인사는 지난 10월 13일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서소문역사박물관장, 옹청박물관장을 상대로 전시작품 철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해인도 도용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 불교와 해인사에 정중한 사과를 통해 종교간 화합의 길, 국민화합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길 당부한 바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외원회도 10월 26일 성명을 내고 "왜곡 법계도는 명백한 종교폄훼로 종교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제작을 전시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전시주체들은 불교계와 전국민에게 공식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구본사는 10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종교역사왜곡 공정'을 멈추고 종교화합과 국민화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전개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한국 천주교에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고운사 등 전국사찰들도 나서 서울시와 가톨릭계에 책임을 촉구했다.

불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불교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오봉 스님은 11월 11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불교상징 법계도를 천주교 전시물에 도용한 서소문박물관과 천주교서울대교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종교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1인 시위는 가톨릭의 공식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 10여 명으로 구성된 불자들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서소문박물관과 서울시청, 중구청 앞에서 팻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봉 스님은 11월 11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가톨릭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월부터 불교 항의성명 이어져**
**가톨릭 측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사과없이 문제 작품 일방적 철거**

조계종 종회의원들은 11월 18일, 법계도 왜곡 도용과 관련, 서울대교구를 방문해 사과를 요청했다. 앞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는 11월 10일 226회 정기회에서 '천주교 해인도(법계도) 도용에 대한 사과 및 전시물 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천주교서울대교구가 서울 중구청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서소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화엄일승법계도 끝에 십자가를 단 대형 나전칠화가 걸려 '불교 왜곡' 논란이 벌어졌다.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서소문 역사박물관은 "해인도의 형상은 우리 전통문화 중 하나"라며 "나전칠화는 해인도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면서 철거 대착 등에 대한 답을 회피해 논란이 일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 가르침의 상징
'법계도(해인도)' 도용 · 왜곡한 한국천주교 참회하라! 사과하라!

"화엄경 핵심교리를
응축한 상징, 해인도!
엄연한 불교의 상징이자
불자들이 지켜야할
성보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한국천주교의
해인도 무단도용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다.
즉각 참회하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한국천주교는
다종교사회 종교갈등을
불러올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신도회

"이제는 불교 법계도도
천주교 선교에 사용하나?
상식을 넘어선
선교행위 중단하라!"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불교폄훼한
서소문 역사박물관,
법계도 끝이 십자가인 것은
명백한 불교폄훼 일환"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법계도의 묵주 변형은
종교역사 왜곡이자
종교갈등의 시작!
한국천주교는 참회하라."
-부산개인택시불자회

"상대방 종교를
폄하하면서 종교 우위를
다지려는 천주교의 행위를
규탄한다!"
-디지털불교대학 동문회 부울경지부

"한국불교의 상징인
법계도를 왜곡한 천주교는
참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 전법행으로 임인년 빛낸 스님·불자는 누구?

## 조계종 포교대상에 정념 스님
## 문화 포교 공로…30일 시상식
## 대원상 우학스님, 대불청 선정
## 진흥원, 11월22일 시상식 개최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전법 · 포교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스님과 불자, 단체들을 시상하는 불교계 포교상들이 잇달아 수상자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16일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로상(총무원장 표창)에는 지범 스님(보문사 주지), 김문자 관음사 신도회장, 강학수 울산 정토사 교육국장, 안병권 마곡사 신도회장이, 원력상(포교원장 표창)에는 정무 스님(동련 이사장), 이삼주 백양사 전남광주지역법회장, 김정순 마하의료회 회장, 김성희 봉은사 불사화주단장, 정성숙 체육인불자연합회 부회장, 박정환 불교크리에이터, 대한불교청년회가 각각 선정됐다.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인 정념 스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비롯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및 활동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법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오대산 월정사' 유튜브 활동으로 교계 주요사찰 유튜브 중 최초 구독자 수 4만 명을 달성하면서 변화된 전법 포교에 노력하고 있다.

포교원은 "정념 스님은 조계종 11,12,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년대계본부 본부장 등 다양한 소임을 맡아 포교 전 분야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제34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불교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 · 시상하는 제19회 대원상 대상 수상자로 출가 부문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재가 부문에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가 각각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제19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개최 11월 14일 최종수상자를 선정 · 발표했다"고 밝혔다.

출가 부문 대상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인 우학 스님을, 특별상에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을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재가 부문 대상에는 (사)대한불교청년회가, 장려상에는 김구석 (사)경주남산연구소장이 수상자(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출가 부문 대상 수상자인 우학 스님은 1992년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도량을 창건한 이래 30년간 대구 · 경북지역 불자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육과 수행, 실천 활동을 이끌면서 도심포교당의 현대적 모델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튜브 불교대학을 개설해 '유튜브를 통한 정토구현'이라는 새로운 발원을 세워 정진하며 국내외 불자들의 수행과 불교공부를 이끌고 있다.

재가 부문 대상 수상단체인 (사)대한불교청년회는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립한 이래 102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불교청년단체로 오랜 기간 불교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한국사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과 올바른 국가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국만해백일장을 비롯해 청년 불자들의 방향모색을 위한 전국불교청년대회, 사찰과 불교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사찰문화해설사 양성, 군부대 지원 법회 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출가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자현 스님은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해 현대 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전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또한 쉼 없는 학문 연구와 집필 활동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재가 부문 장려상 김구석 소장은 신라 불교 성지인 경주 남산 지킴이로 활동하며 평생을 경주 남산의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홍보에 매진해왔다.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문화유적 답사를 비롯해 1981년에는 경주 남산 성역화 활동을 전개했고, 1997년에는 '경주 남산 세계유산등록 추진을 위한 시민모임'을 주창하며 경주 남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데 기여했다.

제19회 대원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초청해 11월 22일 오후 3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은 2000만 원, 특별상은 1000만 원, 장려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34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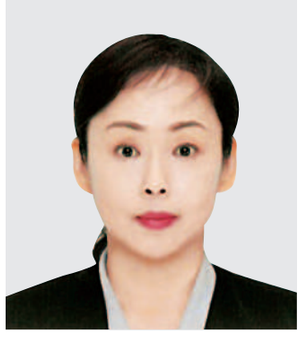
정념 스님

**제19회 대원상 출가부문 대상**



우학 스님

**제19회 대원상 재가부문 대상**



대한불교청년회(장정화 중앙회장)

## 조계종, 힌남노 피해 사찰에 1억원 지원

### 진우 스님 11월 14일 경주 황룡사 · 백률사에 전달

조계종이 올해 여름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황룡사와 백률사에 태풍 수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경주 황룡사 주지 도연 스님과 백률사 주지 성법 스님의 예방을 받고 수해 지원금 8000만 원과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먼저 복구에 진력하고 있는 주지 스님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더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조속한 시일에 정상적인 가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률사 주지 성법 스님은 "종단에서 어렵게 모금한 성금을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황룡사는 힌남노의 북상으로 요사채가 파손되고 다량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백률사는 출입 길목으로 토사가 떠밀려 오면서 굴불사터를 덮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14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주 황룡사 주지 도연 스님(왼쪽 사진)과 백률사 주지 성법 스님(오른쪽 사진)에게 지원금 8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에 호산 스님

### 문체부 심의위, 16일 회의서… 기념관 현황 공유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소속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 · 27법난위원회)는 11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호산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호산 스님은 "10 · 27법난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명선대종사 스님의 말씀과 다른 어른 스님들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10 · 27법난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종단의 총무부장으로서 10 · 27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 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장에 선출된 호산 스님은 종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수계(사미계) 했다. 상원사, 용문사 주지 및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총무부장이다.

호산 스님과 함께 이날 민간위원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10.27법난 피해자 모임회장 명선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연화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 김민숙 전국여성불자회 회원 등이 각각 위촉됐다.

정부위원에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정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등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0 · 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추진 현황과 촉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은호 기자**

## 청년 대학생, 신행순례길서 걷기명상

### 11월 25~27일 제주 관음순례길서 진행

조계종 포교원이 재가불자의 새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개발한 교구별 순례에 청년대학생들이 동참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석주, 이하 대불련)는 11월 19~20일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에서 순례를 진행한 데 이어 11월 25~27일에는 제주 관음사에서 관음순례길 순례를 이어간다.

제주도 관음순례길은 제주 관음사부터 제주시 시민복지타운광장까지의 10km로, 산천단과 남국사 등 제주 한라산의 불교문화와, 제주도심까지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순례길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신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순례코스에 참여를 안내하여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인사 단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1월 17일 제16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차장급 인사이동이 대거 이뤄졌다. 차장급 인사로는 김정호 재무부 차장, 공승관 문화부 차장, 전인동 호법부 차장, 권대식 교육원 차장, 정유탁 포교원 차장, 김한일 불교중앙박물관 차장, 심원섭 승려복지회 사무차장, 성만제 미래본부 차장 직무대리 등이다.

팀장급 인사는 △유남욱 총무부 총무팀장 △조영덕 사찰교무팀장 △김추연 기획실 홍보팀장 △신유철 대외협력팀장 △김재훈 감사팀장 △손승희 재무부 회계팀장 등이다. **신성민 기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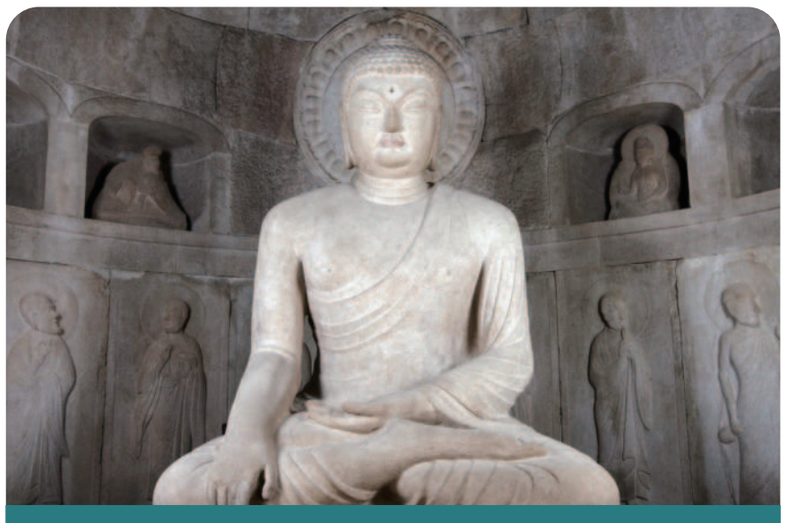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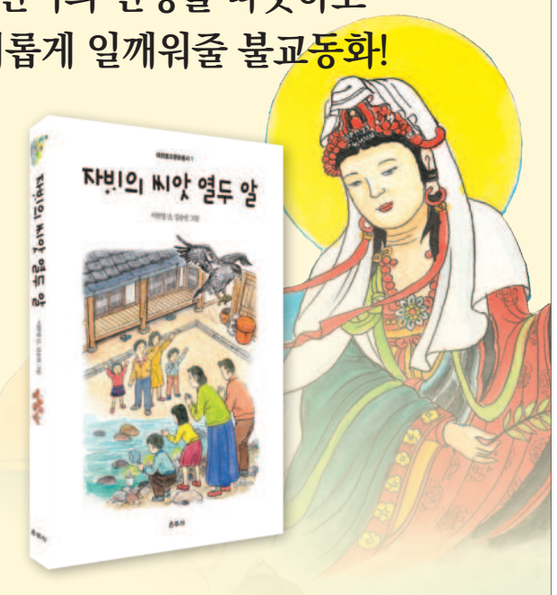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불교상담 간과한 상담사法 제정 반대한다”

## 한국불교상담학회, 11월 12일 ‘상담사法’ 학술대회

**심상정 등 상담사법 제정 추진**
**국가자격 조건으로 심리학 국한**
**法통과 시 ‘불교상담’ 위법 전락**
**선업 스님 “구제안 다각도 마련”**
**양성 과정 정비, 내실화 주장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1월 12일 경주 황룡원 화랑홀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상담사 법제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심리상담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종교 상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안타깝다. 불교 상담 및 종교 상담의 영향을 무시한 법안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11월 12일 경주 황룡원 화랑홀에서 ‘불교상담과 심리상담사 법제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심리사법 제정을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심리상담학계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고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4300여 건(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전문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 과정 속에 종교 분야와 예술심리상담,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배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담심리사법 법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상담사 법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리상담사 법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심리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국가 자격증 응시 조건에 심리학 전공 또는 심리학과 전공과목 이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시 종교 상담을 포함해 교육, 사회복지, 아동, 간호 등을 전공하고 상담 활동을 하는 상담가 및 단체는 위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법안 가운데 심상정 의원의 ‘상담사 법안’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 구제와 폭넓은 자격 취득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준비 중인 법안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심리상담사 법안 비교 및 불교계의 대응 방향’을 통해 “지난 11월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상심리학회와 심리사들은 다른 단체는 쓸모없는 비전문가 취급을 했다”며 “여러 상담가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다른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상담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새롭게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담심리 관련 법제정에 대한 학교 및 불교상담의 역할’을 발표한 효록 스님은 “모든 사람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종교적인 색채를 걷어내고 불교상담의 과학적 접근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현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붓다의 성품(불성)을 회복하는 데 상담(심리치료)과 명상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학은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지금은 정신과 의사에게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 학회와 학교가 할 일은 실전 상담을 위한 수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민 신부(수원 가톨릭대)는 ‘종교의 입장에서 본 심리상담사 법제화’에서 “제출된 법안들 가운데 상담학,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등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유사심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고, 심리학 전공만을 위한 독소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전인적 건강을 위한 결과이며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와 영성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양규 한국불교상담학회장은 “심리사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하동 쌍계사 일원 ‘명승’으로 지정돼

## 하동군 11월 17일 밝혀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고 11월 17일 밝혔다.

명승 지정은 지난 2월 하동군이 자연유산 우수 잠재자원 추천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지정예고를 거쳐 이뤄졌다.

명승은 경관성 · 역사성 등 종합적 가치가 충족돼야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의 종합적 가치를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과거부터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명승지로 역사 ·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히, 지리산 10경 중 하나인 불일폭포는 60m 높이의 거대한 폭포로 다양한 식생과 기암괴석, 계곡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불일암에서는 지리산의 빼어난 비경을 볼 수 있다.

쌍계사에서 불일폭포에 이르는 산중은 통일신라 진감선사 유적과 쌍계석문 등 최치원의 행적이 현존하고 있다. 신선사상의 전형적 공간인 청학동의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지리산 수림과 더불어 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과 불일암 · 국사암 · 환학대 · 완폭대 각석 등 옛 명승 자원이 남아있는 등 학술 가치가 풍부하다.

하동군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 지정된 문화재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 자원화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9위 달성

**학생교육 · 인문 연구성과 두각**
**건학이념 구현으로 나타난 성과**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9위를 달생했다.

동국대는 “11월 14일 발표된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순위 9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으로 9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톱10 대학으로 기반을 다졌다.

동국대는 △학생교육 부문 4위(이전 5위) △교수연구 14위(이전 12위) △평판도 10위(이전 13위) △교육여건 29위(이전 26위)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며 2년 연속 9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평가영역별로 학생교육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동국대는 특히 창업지원 분야의 강점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학생교육 부문은 취업이나 창업의 양과 질,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과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동국대는 학생교육 부문에서 80점 만점에 57.010점을 획득해 4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3위(이전 5위) △중도포기율 5위(이전 8위) △외국학생 중도포기율 3위(이전 6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올해 현장실습의 질적 평가를 강화해 양질의 실습을 가장 활발히 진행했다”면서 “학생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뒤 교수진과 동문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창업의 양적 성과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 모두 만족시킨 결과로 높은 성적을 받게 됐다”고 자평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인 연구부문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 논문 9위(이전 13위) △인문사회 저 · 역서 발간 13위(이전 27위) 등 인문계열 연구 성과에서 크게 약진했다.

평판도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인 10위를 기록했다. 또한 △기업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11위(이전 15위) △학부모 진학 선호대학 10위(이전 13위)를 차지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2년 연속 9위를 달성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학의 기본인 ‘교육’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건학위원회 출범을 통해 종단과 법인,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동국대는 현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과 합심하여 쉼없이 나아가 톱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용주사, 동국대 건학위에 장학기금 5천만원 기부

## 17일 전달식… 건학위 장학기금 활용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가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1월 17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주사 건학위원회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과 용주사 관장 겸 학교법인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 스님, 용주사 총무국장이자 삼막사 주지 성효 스님이 참석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윤성이 총장과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박광현 교무학생처장이 함께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학생들의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동국건학장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일이면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사업을 시행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뜻깊은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장학기금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이 장학기금 전달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주사 주지 성법 스님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인재불사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동국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연예인전법단, 문화예술 포교 밑거름 될 것”

## 연예인전법단 이끄는 단장 탄탄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22일 공식출범 앞두고**
**적조사서 사무실 현판식 개최**
**가수, 시인, 방송인 등 결집해**
**불교문화 지평 넓히는데 앞장**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장 탄탄 스님은 11월 15일 적조사에서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포부와 연예인전법의 중요성을 밝혔다.

예술, 문화 분야 전법포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하는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이 적조사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11월 15일 적조사에서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다.

11월 22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공식 출범식에 앞서 연예인전법단장을 맡아 문화포교를 이끄는 탄탄 스님(적조사 주지)은 “전법단이 교도소, 요양원, 복지관, 학교 등 전법포교 현장에서 문화포교 효과를 극대화할 불자연예인들의 구심점이 되도록하겠다”고 연예인전법단 사무실 개소를 겸한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은 김국환, 김흥국, 장미화 등 원로가수들을 비롯해 산악인 엄홍길, 방송인 이익선, 만담가 장광팔 씨 등 문화체육예술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가수분과와 연극분과 등 세분화된 분과에 총 20여 명의 지도법사와 160명 가량의 단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법단 구성에는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평소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탄탄 스님이 큰 역할을 했다. 탄탄 스님은 “현대사회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예술의 범주는 음악과 춤 등에 머무르지 않고 시와 문학, 평론, 스포츠 등 굉장히 넓다”며 “출범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대중 속으로 찾아가는 불교를 기치로 내건 상월결사에도 적극 동참 중인 탄탄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연예인들이 스님들과 차 한 잔하며 마음 속 신심을 낼 수 있는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방송에서 기독교 연예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분개하면서도 정작 불자연예인들을 아끼고 끌어주는 모습이 부족했다. 연예인전법단 출범을 시작으로 불자들이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개신교계에서는 이미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자리잡혀 있기에 먹고살기 위해서 개종까지 고민한다는 불자연예인들의 하소연이 많다”며 “가을 산사음악회 외에도 불교계 언론, 문화관,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불자연예인들의 활동 영역을 적극 넓히고, 무명일 때부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연예인전법단 사무실 현판식에는 이러한 스님의 원력에 동참하는 불자연예인들이 함께했다. 불자가수회장을 역임한 김국환 씨는 “불교계에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며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 전법단에 동참할 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담가 장광팔 씨도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연예인전법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현대사회 포교전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불자연예인”이라며 “연예인전법 활성화를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현판식은 이장학 소리꾼 등 전법단원들의 즉석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 “청소년 불자에게 용기와 희망되길”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19회 은정장학금 전달식

**11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서**
**학술상, 장학금 등 34명 시상**
**제14회 나란다 축제 시상도**

불교학 진흥과 불교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술상,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9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4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과 상임이사 성월 스님, 이사 성효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장 자승 스님은 상임이사 성월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은정재단은 2002년부터 총19회에 걸쳐 장학 및 학술연구지원과 생활지원금을 통해 인재불사를 확장해 왔고, 14회를 맞은 나란다축제는 2009년 교리경시대회로 시작해 전통문화체험, 국악경연, 케이팝 경연 등 전통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크게 축소됐다가 3년 만에 예년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며 유익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올해의 큰 의미다. 은정장학금과 나란다 축제가 각자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은정재단은 많은 청소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국가와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돼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축사에서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를 직접 이끌며 불교중흥을 기치로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을 이끌고 있다”면서 “나란다 축제와 상월결사가 청소년 전통문화의 창달이 불교중흥, 수행정신 함양, 신행포교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포교원도 함께 발맞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19회 은정장학금은 불교단체 부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비롯해 학술상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장학생 부티홍밍(동국대 대학원 국어국문과 석박사통합) · 현문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4학년) · 무설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1학년) 등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6명, 초등학생 1명 등 총 34명이 수상했다. 올해 총 장학금 56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6~17일에 열린 제14회 나란다 축제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개인부문 대상에는 윤태준(우이초 4학현), 박효진(동대부여중 2학년), 강수연(광동고 2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으며, 단체상은 동대부여중이 수상했다.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에서는 정광고의 ‘로터스’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후감 공모전에서는 오윤겸(동국대WISE캠) · 박준영(호국충용사) 씨가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이지율(동대부중) 학생이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올해로 19회를 맞은 은정장학금 전달식은 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200여 곳의 단체와 5543명의 수혜자를 배출했다. 현재까지 장학금 규모는 31억 4700여 만 원에 달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1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9회 은정장학금 전달식과 제14회 나란다 축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청담대종사의 철저한 수행정신 이어받자”

**11월 15일 도선사 ‘51주기 다례재’**
**진우 스님·문도회 3백여 명 참석**



서울 도선사는 11월 15일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15일 오전 11시 경내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5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청담대종사께서 만중생에게 던진 설령 금생에 성불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건지겠다는 원력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평생 정화불사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앞장섰던 큰스님의 원력과 사상 그리고 가르침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일면 스님은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멸하지 않는다는 큰스님의 사자후는 열반에 드신 지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빛나고 있다. 앞으로도 큰스님의 설법은 많은 수행자들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추모법문을 통해 “청담 대종사는 한국불교의 기반을 닦으시고 중흥의 발판을 만드신 수행자”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수행자로서의 업적을 기리고 싶었다. 특히 대종사는 성철 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결사를 통해 간화선 수행 가풍을 확립했으며,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금강경〉 강의를 통해 불교의 요지와 핵심을 알리는 데 앞장서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저 또한 청담 대종사의 〈금강경〉 강의를 듣고 재발심하게 됐다”며 “대종사께서는 연기법, 인과법, 공사상 등 불교의 세가지 진면목을 잘 설파하신 뛰어난 강사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도 문도회를 대표해 “청담 대종사는 젊은 시절 전국 선원에서 철저히 정진하시며 모든 수좌들에게 모범이 됐다”며 “추운 겨울에도 누더기 하나만 걸치시고 맨발로 정진하실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하셨다”고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도 “오늘 다례재를 맞아 우리 후학들은 청담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진력하길 서원한다”고 밝혔다. 다례재가 끝난 뒤 도선사는 강북구청과 도봉구청에 각각 자비의 쌀 5000kg을 전달하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추운 겨울 도선사 사부대중의 온정으로 관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반 51주기를 맞은 청담 대종사는 1950~60년대 불교정화불사를 주도해 조계종 근간의 기틀을 마련했다. 치열하고 철저한 구도역정을 펼친 청담 대종사는 성철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주도하며 수행가풍을 확립했고, 역경, 도제양성, 포교 등 조계종 종단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한편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과 원행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진우스님,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 서울 도안사 주지 선묵 스님, 천준호 국회의원,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원심회 34주년…장애인 인식개선 호소

**11월 14일, 기념법회 · 토론회 개최**
**호소문서 “장애인포교 관심” 촉구**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의 소통과 공감에 앞장서 온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심회(회장 김철환)는 11월 13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 34주년 기념법회와 청각장애인 포교 활성화 토론회’를 봉행했다.

1988년 수어통역사 10여 명으로 출범한 원심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기 수어법회를 비롯해 수어 경전과 수어 찬불가 제작, 비장애인 대상 수어교육강좌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불자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열어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포교를 체계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해왔다.

이날 법회에서 지현 스님은 “보살의 마음으로 자비행을 실천하는 원심회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원심회에 함께한 모든 사부대중이 소중한 인연공덕으로 장애와 비장애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온 세상에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함께 전하는 선한 도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이 ‘불교 장애인 포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류제수 천주교 에파타 성당 사목회장이 ‘천주교 에피타성당 사례’를, 김철환 원심회장이 ‘조계사 원심회 현황과 청각장애인 포교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각장애인 조계종 포교사를 최초로 배출하고 불교수어를 표준화하는 등 창립 이후 많은 성과를 낸 원심회는 34주년을 맞아 스스로를 점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불교계의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호소문에는 △ 장애인포교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 공간확보 △ 장애청소년 불자 확보 △ 불교 양로시설 · 요양병원 장애인 이용 △ 불교 언론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 등이 담겼다.

김철환 원심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 불사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면서 “특히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포교 자체가 장애인 포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일상다감사 ‘감사일기’ 도서 펀딩 출간

**중승대 졸업 한산 · 무여 스님**
**‘100일 감사일기’ 모아 기획**
**11월 28일까지 텀블벅서 진행**




스님들로 구성된 창작집단 ‘일상다감사’가 펀딩으로 도서 출간에 도전한다. 제작될 도서는 빛나는 나를 위한 100일 선물을 주제로 한 ‘지금 여기 감사 일기’다.〈사진〉

도서 출간을 진행하고 있는 ‘일상다감사’는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한산, 무여 스님이 함께 젊은 세대들의 불교유입과 불교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고민하다 고안된 것으로 “내가 필요한 책, 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日常]’이기도 하고, ‘차별 없고 절대 평등한 진여의 상[一相]’이기도 하다. 기도, 염불, 명상, 간경, 사경, 절 등 여러 수행 가운데 현대인에게 가장 알맞는 방편으로 감사일기를 채택했다.

저자인 한산 스님은 2022년 1월 1일부터 네이버카페에서 ‘100일 감사 일기’를 운영하면서 20대부터 70대까지 종교를 불문하고 불특정 회원들과 함께 매일 감사일기 3편을 써오고 있다. 300여 일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착안, 책을 기획하게 됐다.

일상다감사는 책 출간을 위해 지난 9월 통영에서 1인 출판사 ‘그봄출판사’를 설립했다. 출판사 대표와 디자인은 무여 스님이 맡았다.

그봄출판사 대표 무여 스님은 “기독교 관련 텀블벅에 비해 불교계 쪽에는 텀블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새로운 포교를 지향하는 이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펀딩은 11월 28일 종료된다. 수익금은 중앙승가대, 군부대, 학교 등에도 보시된다. 텀블벅 주소 : https://www.tumblbug.com/100thank **임은호 기자**

# 비구니회, 백제유적서 역사 세우기 염원

**11월 12일, 서산 보원사지 · 해미읍성 등 순례**

**무분별한 성역화 반대 입장문**
**“공생공존 공동체 문화 희망”**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공공유적 역사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며 불교 역사가 지워지고 있는 현장에서 걷기 명상을 펼쳤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1월 12일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3주년을 맞아 ‘백제의 미소길 걷기명상 및 공공유적 역사바로세우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 참배로 시작됐다. 이어 서산 보원사지와 가야사지 등 내포문화숲길 걷기명상과 홍성 홍주읍성 서산 해미읍성 순례, 공공유적지 역사바로세우기 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공공유적지를 특정 종교 성지가 아니라 공생과 공존의 공동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가톨릭 성역화 이대로는 안된다’는 제하의 입장문에서 전국비구니회는 “지자체는 지역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천주교 성역화 사업이 종교화합을 깨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역사공간이 누구에 의해 점유되는 주관적 성지조성보다는 공생공존의 공동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하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3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님은 “불교역사 바로 세우기와 더불어 공공영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특정종교의 성지인양 안내문을 세워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바로 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상월결사 3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에서 봉은사 국악합창단 156명이 흰 영가등을 들고 조가 '무상게'를 합창하고 있다.

# "중생 고통 함께 보듬는 게 상월결사 정신"

## 상월결사 3주년 맞아 '이태원 참사' 추모법회 11월 11일 봉행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문전옥탑 있다 해도 너하고야 바꿀쏘냐. 애지중지 키웠는데 거리 중에 참사라니 원통하고 통분하다. 이를 어찌 할꼬. 불쌍하고 가련하다."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에 전하는 등환 스님의 '화청'이 애절하고 구슬프게 봉은사 경내를 채웠다. 애닯은 심정에 사부대중들은 이내 연신 눈물을 훔쳤다.

세속으로 내려와 위례신도시 천막법당에서 정진하며 시작된 상월결사의 3주년이었지만, 세상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와 추모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상월결사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며 3주년 기념행사를 추모법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11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에는 자승 스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한 1만여 사부대중이 경내 미륵광장에 운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종단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정진석 국민의힘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윤성이 동국대 총장, 구태서 현대불교신문 대표 등이 자리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간절한 참회와 발원의 마음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참회의 참(懺)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悔)란 다음에 오기 쉬운 허물을 아주 끊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라며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데 그친다면 참회가 아니다. 참회는 눈물과 땀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간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연법의 깊은 속을 헤아릴 줄 아는 뉘우침과 새로운 다짐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의 참회"라고 설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과 무사안일이 쌓이고 쌓여서, 이토록 커다란 슬픔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경책한 자승 스님은 "구태와 관습에 안주하려는 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대로 뉘우쳐야 올바로 발원할 수 있듯이, 수행정진이 일상화되고 신행생활이 체질화 된다면 사바세계가 곧 수미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

**봉은사에 1만여 사부대중 운집**

**여야 대표 등 정치인 대거 참석**

**자승스님 "간절해야 참회" 경책**

**위령의식, 조가 등 희생자 기려**

주요 내빈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상월결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사회적으로 큰 희생이 발생한 이후에도 되풀이되는 안전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약속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세상이 어두울 때는 우리가 빛이 되어주고 부처님의 소리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면서 "상월결사의 정신은 바로 이와 같으며, 오늘 함께하는 추모와 애도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 상월 정진은 중생의 고통 곁에 서있으며, 중생의 손을 맞잡고 사회 현장에 서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종단은 상월결사와 함께 나가겠다. 중생의 벗이 돼 세상과 함께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며 "부처님의 생을 따라 인도 순례길에서 뭇 생명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회주 스님의 말씀과 같이 전법포교의 한걸음이 국가의 번영과 불교중흥의 공익임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은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더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다"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과 사회의 책무에 방만하지 않도록 냉철해야 한다. 정진은 나만의 정진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도 추모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대표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회한을 마음에 묻고 국민의힘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정한 애도는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회 참석 사부대중은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희생자들께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꿈들이 우리 곁에 아직도 그대로"라며 "이러한 꿈들을 우리가 활짝 피워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모법회는 희생 영가에 대한 위령의식과 살풀이가 진행됐으며, 봉은사 국악합창단 156명이 하얀 연등을 들고 '무상게'를 조사로 합창하며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서 인묵 스님 등이 위령의식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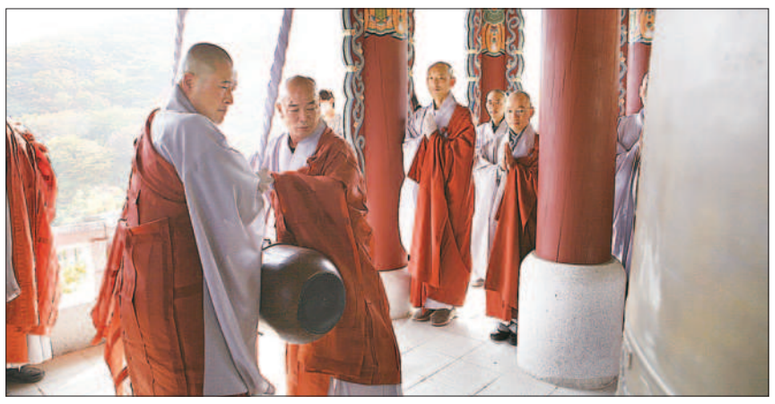
추모법회에서 정치계 인사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 부산불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

### 11월 11일 11시…11번 타종

### 부산지역 사찰 50여곳 참여
### 참전 용사 극락왕생 발원해
### 동시 범종 울리며 추모묵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지역 사찰들이 11월 11일 11시 범종을 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부산 지역 사찰들이 11월 11일 11시 범종을 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국제 추모 행사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에 함께 동참하고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추모의식에는 범어사, 삼광사, 백운사, 부산 강서구 청량사, 부산 사상구 광명사, 부산 사상구 관음사, 부산 기장 안적사, 총지종 정각사, 금용암 등 부산 주요 사찰 50여 곳이 동참했으며 각 사찰의 불자들은 법당과 경내에서 타종 소리에 맞춰 묵념하며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2022 팔관회' 공식 행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진행됐으며, 부산불교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와 함께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호국의 장으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범어사는 선문화관 앞 범종각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했으며, 주지 보운 스님이 타종하자 사중 스님들과 불자들은 현장에서 합장하며 묵념했다. 이후 불자들이 타종했으며 주지 보운 스님과 스님들은 유엔묘지를 향해 손을 모으고 추모의식을 이어갔다.

삼광사는 법당에서 불자들이 함께 묵념했으며 타종의식에는 부산 천태종 광명사 유치원 원아들이 참여해 타종할 때 합장하고 선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은 "신라시대 팔재계를 봉행하며 호국불교를 염원한 전통의식 팔관회를 '턴 투워드 부산' 세계 추모의 날과 더불어 호국 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송구한 마음이 들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며 전국에서 일제히 범종을 울리고 추모하는 그 때까지 역할을 이어 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을 향하여'라는 의미의 '턴 투워드 부산(Trun Toward Busan)'은 유엔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하여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22개 유엔참전국이 2007년 첫 행사 때부터 함께 사용해온 공식 슬로건이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에 맞추어 '턴 투워드 부산' 의식에 동참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타종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범어사는 11월 16일 보제루에서 종립학교 원효학원 해동중학교(교장 최낙현) 졸업 법회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신입 교사와 3학년 졸업생 115명 가운데 63명(희망학생)이 계를 받았다.

주지 보운 스님은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꿈을 위해 노력 할 때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실패가 두려워 주저앉으면 시도하지 않게 되고 좌절의 삶을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세상의 성공자들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 역경을 이겨낸다. 실패가 있어도 도전하는 의지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하동 쌍계사, 동국대에 2000만 원 기부

### 11월 9일 전달식…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영담)가 동국대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1월 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쌍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쌍계사 부주지 지현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윤성이 총장, 지역 장학생 20명이 함께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쌍계사는 동국대 재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2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경남 서부지역 산청, 함양, 진주, 함안, 거창, 합천, 고성, 통영, 거제, 사천 등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는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이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통해서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을 위한 이 장학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깨닫고 사회가 원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쌍계사 부주지 지현 스님은 "건학위원회에서 마련해주신 좋은 기회로 인재불사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사회의 기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혜원(철학과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쌍계사와 영담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혜원 학생은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역경을 기회로 바꿔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나눔 일번지 미소원, 개원 11주년

### 11월 12일 미소원 법당서 기념법회
### 기도비 모은 성금 100여만 원 전달
### "우린 사람 살리고 佛法 전하는 이"


미소원이 11월 12일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1월 12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미소원은 2011년 11월 11일 설립한 재가 봉사단체로, 부산구치소 재소자 신행상담과 국립마산 결핵병원 후원, 무연고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등 나눔 활동을 전개했으며, 지역 복지 기관과 연계해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외연을 넓혔다. 아울러 JTS 인도 불가촉천민 지원, 우물파기 등 해외 구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법회에는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과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 경주 금선선원 현담 스님, 장유정 이사장, 김진홍 동구청장, 민경영 거인병원 병원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수행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이두찬 초대 신도회장, 김주희 미소원 전임 법인이사, 김소양 신도회장, 문연숙 신도회 부회장이 공로장을 받았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하고 지역복지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지아 미소팀장과 조소정 청년회문화부장이 동구청장상을 받았다.

이어 미소원은 11주년을 맞아 기도비로 모은 성금 183만 7390원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어 미소원의 행보를 응원하며 평화시장 불자회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나눔 후원비 50만 원을 미소원에 전달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우리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사람을 살리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시다"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목종 스님은 "미소원은 부처님 가르침이 실현된 장소라고 생각한다. 법계에 많은 불국토가 있지만 처음 출발할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며 "미소원 개원 11주년을 축하드리고 자비의 불국토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행 정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청명 스님은 "관음신앙 중에 관세음보살님의 33가지 모습 중에 한 분이 사자후관음이다. 시방세계를 두루 울리는 사자후 보살처럼 이사장님께서는 모두에게 울림을 주고 실천하도록 움직이게 만든다"며 "신명나는 봉사활동을 응원하며 11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종희 동구청장은 "미소원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종교에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런 훌륭한 봉사단체가 우리 동구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고 축사했다.

한편, 미소원은 11월 7일 정토회 두북수련원(울산 울주군 소재)을 방문해 JTS 인도 의료비 지원 및 우물 파기 후원금 1305만 원을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환수 못한 성보 환지본처 기원합니다"

###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물 지정 기념 · 시왕도 환수 기원대회

### 美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 시왕도 4점 조속 환수 기원



국외로 반출됐다가 66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온 신흥사 영산회상도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을 기념하고 미환수 성보를 환수하기 위한 염원을 모으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회주 우송)는 11월 15일 경내 유물박물관에서 '영산회상도 보물 지정 기념식 및 시왕도 조기 환수 기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주지 무문 스님은 "신흥사의 성보인 영산회상도가 국외를 떠돌다 환지본처했고, 돌아온 지 2년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면서 "신흥사 사부대중은 환지본처한 성보를 잘 예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수화승 태전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 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됐다.

지정 당시 문화재청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는 강원도 지역에 소수만 남아있는 18세기 불화로서 희소성이 있고 조선왕실의 원찰인 신흥사에서 영산재 봉행을 위해 조성한 후 극락전에 봉안했다는 점에서 역사 · 학술 ·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화면 속 존상(尊像)들의 절제된 형태와 차분한 분위기, 중간 색조의 색감 등 품격 있는 화풍을 구현했다"고 지정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신흥사는 현재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흥사 4점에 대한 조기 환수를 기원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신흥사 시왕도는 1798년 (정조 22년)에 조성됐으며, 제2초강대왕도 · 제4오관대왕도 · 제6변성대왕도 · 제3송제대왕도 · 제5염라대왕도 · 제9도시대왕도 총 6점이 환수됐다. 하지만 4점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상래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 이사장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시왕도 4점이 미국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서한문을 보내고, 이 박물관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한 제주도청에 시왕도도 함께 전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기 환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삼광사, 자비의 쌀 1만kg 전달

###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 가정 등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가 11월 10일 경내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삼광사는 전달식에서 백미 1만kg을 부산진구청, 부산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부산시협회, 복지관시설, 저소득가정에 전달했으며, 쌀은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주지 영제 스님, 재무 성화 스님과 삼광사 지부위원들이 동참했으며 각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불교는 대승보살도 실천을 시대정신으로 삼아야한다"며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비의 쌀은 삼광사 창립 53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광사는 매년 지역 나눔을 위해 백미 및 김장 나눔 등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동련,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 성료

###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 주제로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정무)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제73차 전국지도자연수회 '나의 절친은 자기 친절입니다'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회는 자신과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의 힘을 알 수 있도록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Mindful Self Compassion)을 주제로 진행됐다.

혜총 스님은 법어를 통해 "'꽃도 너를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참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자 한다"며 "탐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을 사랑할 때 진심이 전해지는 법이다. 어린이를 대할 때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수회는 서광 스님의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자기연민(Mindful Self-Compassion For Teens)'으로 시작해 이경미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치유로부터 시작된다' 주제로 푸드테라피가 진행됐다. 다음날 '토닥토닥 따스함을 느껴요'와 '친절한 주의 기울이기-연민어린 바디스캔', '쓰담쓰담 쉼 해요', '내 마음의 글을 써요' 등 마음 챙김을 통한 자기 연민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강의는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소속의 김나연, 장초희, 혜타 스님, 홍혜성 강사가 담당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부산불교합창단聯, 2022 부산불교합창제

###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등 참여
### "찬불합창 대중화 위해 노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가 11월 1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22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대중에게 전하는 묘법연화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너울무용단의 '극락무'로 문을 열었다.

합창제는 부산불교연합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 부산불교 지휘자 중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용화선문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이 참여했다.

김옥희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부산불교합창제연합회 회원들은 신심 깊은 불자로서 각 사찰에서 수행하고 봉사하는 것은 물론, 음성포교의 일환으로 찬불합창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국보급 문화재 답사하고 강의도 듣고

### 수덕사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 '눈길'

국보급 사찰 문화재를 답사하고 강의를 듣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정묵)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 '를 이어간다"고 11월 16일 밝혔다.

문화유산 답사와 강의를 연계한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매회 20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해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에는 '고건축'을 주제로 정하고 우리 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참가자들은 한옥에 묵으며 전통 사찰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유산 전문가인 류호철 안양대 교수와 함께 국보로 지정된 수덕사 대웅전 등을 답사하며 우리 전통건축에 숨어있는 조상들의 지혜와 지식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고건축박물관에서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갖가지 목조건축 문화재들의 모형을 비교하며 전통건축의 비밀을 찾고, 추사고택에서는 추사 김정희의 삶과 함께 한옥에 담긴 과학성을 알아본다. 사찰로 돌아와서는 손꼽히는 고려 시대 건축물인 수덕사 대웅전을 통해 그 시대 건축물의 특성과 국보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본다. 수덕사는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덕사가 특별 기획한 ' 문화유산 투어 템플스테이-고건축편 '은 12월 16일, 30일 각각 1박 2일로 진행된다.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041)330-7789.

신성민 기자

# 보물 '고운사 연수전' 의미 · 가치 고찰하다

**고운사, 11월 11일 학술대회**
**국내 사찰 유일 기로소 전각**
**2020년 '보물'로 승격 · 지정**
**연수전 특징, 활용방안 살펴**

조선시대 영조와 고종의 기로소 입소 기념으로 지어진 왕실 전각인 고운사 연수전(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가치와 활용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는 11월 11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 연수전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는 11월 11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 연수전의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고운사 연수전 모습.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 영조(英祖, 1694~1776)와 고종(高宗, 1852~1919)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고운사 경내의 유일 왕실 전각이다. 기로소는 70세 이상의 정2품 이상의 문관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국왕의 경우 60세를 넘으면 기로소에 입소한다. 조선 왕실에서 기로소에 입소한 왕은 태조, 숙종, 영조, 고종 4명뿐이다.

영조 20년(1744년)에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고 어첩을 모시는 봉안각으로 지어진 고운사 연수전은 이후 '기로소봉안각(耆老所奉安閣)'으로 변경됐다. 고종 황제가 광무 8년(1904년)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축리전(祝釐殿)'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연수전(延壽殿)'으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사찰 내 기로소 원당(願堂)은 순천 송광사와 의성 고운사 등 2곳이 있었으나, 송광사의 경우 현재 불당으로 바뀌며 사라졌고, 고운사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같은 이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8월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했다.

의성군이 지원하는 '고운사 소장 기록유산 일체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연수전의 건립 과정과 건축사적 위상, 관련 기록 자료,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뤄졌다.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는 '고운사 연수전의 연혁과 연수전 문서' 기조 강연에서 고운사에 소장된 연수전 관련 기록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수전의 건립 및 변천 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김형수 박사(한국국학진흥원)는 '조선후기 경북지역 불교계의 재정비와 고운사의 위상'을 통해 고운사의 사세 및 변화 과정을 언급하며 연수전의 건립과 관련한 당시 불교계의 흐름을 밝혔다.

김석현 박사(명지대)는 '조선시대 기로소 건축과 의성 고운사 연수전'에서 연수전의 건축 특징을 살폈다. 그는 영조 대에 지어진 건축물과 이후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개보수 과정 및 현재 건축물의 상태 등에 대해 언급하고 보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고운사 연수전 단청의장의 내용과 사회적 배경'을 발표한 구본능 단청기술연구소장은 왕실 건물의 위상을 드러내는 연수전 단청의 면모를 밝히고 현재의 상태 및 복원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이규철 성신여대 교수는 '역사콘텐츠 시각으로 본 고운사 연수전'에서 연수전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고운사의 연수전은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연수전의 진정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연수전의 보존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 사천 평안사 회주 은송당 보선 스님 원적

**11월 8일 세수80 · 법랍36세 원적**
**서부 경남 일원서 포교활동 펼쳐**
**10일 사천 평안사서 영결식 봉행**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 일원에서 포교행을 펼쳤던 사천 평안사 회주 은송당 보선 스님〈사진〉이 11월 8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80세, 법랍 36세이다.

1943년 5월 5일 경남 산청읍 모고에서 태어난 보선 스님은 1987년 삶의 무상을 깨닫고 출가했다. 이후 1990년까지 창원 광산사 등 여러 사찰에서 수행정진했다. 1991~2001년에는 함양 화정사 주지를 지냈다.

이후 2002년부터 서부 경남 지역의 포교를 위해 사천 평안사를 개산하며 초대 주지로 활동했다. 2017년까지 평안사 주지를 지내며 승가원 휠체어 제작비 지원, 산청초교 장학금 지원, 육군 논산훈련소 군법당 신축 불사금 보시, 진주 총림사 유치원 설립 보시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

또한 진주불교회관 중창불사의 초석을 놓았으며, 가야불교대학장과 자비도량참법, 금강경독송회, 군법당, 노인요양원 등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지역 전법에 힘썼다.

보선 스님의 영결식은 스님이 개산한 사천 평안사(주지 지현)에서 11월 10일 봉행됐다.

평안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은송당 보선 스님은 전법과 자비 정신을 오롯이 실천으로써 보여주셨다. 훗날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수행자를 뵙게 된다면 보선 스님의 화신으로 생각하겠다"며 "편안히 원적에 드시고 저희 곁에 속환하시어 뭇 중생들께 가르침을 주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안정임 신도회장은 추모사에서 "보선 스님께서는 꽃피는 봄을 좋아하시고 〈금강경〉 독송 수행을 쉼 없이 하셨다. 스님은 항상 근검절약하시며 많은 불사를 이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통 큰 보시를 하시며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면서 "스님의 육신은 가셨지만 스님의 청정하고 맑은 불성은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보선 스님 같은 훌륭한 수행자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추모했다.

조카 대륜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마음을 잘 알아 실천하고 받들어주신 주지 지현 스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보선 스님께서 보여주신 절제된 삶은 사부대중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후학으로서 본받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무위자연 노래한 '진묵대사' 연극으로 제작

**'천년을 뜨고 지면 : 진묵대사, 노닐다 간 자리' 초연**

"한바탕 신바람 춤을 추니, 긴소매 옷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그것이 걱정이노라"

신통한 능력으로 생사를 임의로 여탈했다는 진묵대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연극무대에 올랐다.

2022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된 극단 삼육오가 창작 '천년을 뜨고 지면 : 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자리'를 무대에 올렸다.

11월 18일과 19일 완주군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된 이번 연극은 완주군 봉서사를 비롯하여 전북지역 곳곳에 깃든 진묵대사의 행적과 설화를 바탕으로 고승의 신이한 행적을 그려낸 국내 최초의 연극이다.

조선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과 당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진 민중의 아픔에 동참하여 유불선 삼교회통의 경지를 펼친 진묵대사의 삶을 최초로 연극화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려말 나옹선사와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불린 두 인물을 대비하며, 천년의 여정 속에 삶과 죽음의 윤회와 운명적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극중 진묵과 희춘의 생을 넘나드는 사랑은 애달픈 해원과 상생을 희구하는 진묵대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층 부각시키며 수행과 삶의 경계에 선 인간적 고뇌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작품은 46년간 무대연출가로서 명성을 쌓은 박병도 교수(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가 극작, 연출을 맡았다.

진묵대사 역에는 장제혁(극단 혜윰 대표), 희춘 역에는 이미리(극단 삼육오 대표)가 출연했다. 국내 최초로 진묵대사를 소재로 무대화 되는 '천년을 뜨고 지면(부제 : 진묵, 노닐다 간 자리)'는 현실과 비현실을 교차하여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관극의 다채로운 감성적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익숙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관점의 무대 표현언어 소통 경험을, 낯선 사람에게는 입체적 관극 체험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출적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사)착한벗들 이주민가정 돕기

**이주민 50세대에 식료품꾸러미 전달**

(사)착한벗들(이사장 회일스님)과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11월 13일 (사)착한벗들 사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참좋은 우리절 석연스님은 지원이 필요한 50세대의 이주민 가정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식료품 꾸러미는 단순한 꾸러미 지원을 넘어 도내 정착을 시작한 결혼이주 여성, 유학생, 외국인노동자 등 낯선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앞서 거주 중인 이주민들의 경험과 지역정보 공유 등 공동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식료품꾸러미에는 김, 계란, 양파, 애호박, 미역 등 9종의 식료품이 담겼다. 도내 이주민으로 구성된 전북이주민자원봉사단 20여 명이 휴일도 반납하고 착한벗들 사무실에서 꾸러미를 만들었다.

(사)착한벗들과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월 10일 전라북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자원봉사 협력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사회봉사와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데 함께한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주민의 권익보호 및 정착을 위한 교육, 상담, 통역, 번역, 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이주민의 벗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 등으로 구성된 전북이주민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박오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이미 지역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문화 확산 및 참여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불교연합회 신임회장에 도성 스님

**활동보고서 · 사진자료집 발간**

광주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에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이 연임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지난 11월 11일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74명의 회원 중 51명 회원 가운데 40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도성 스님을 선출했다.

도성 스님은 당선소감을 통해 "앞으로의 2년간의 소임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발전하는 광주불교의 모습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이를 위해 승가의 화합과 원융살림을 통해 건강한 단체를 만들고, 종단을 넘어 어른 스님들에게 늘 예경하고, 후배스님들과 함께 화합해 단체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도성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출가해, 1981년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백양사 교무국장, 물외암 중창, 무안 보광정사 주지, 광주 관음사 주지, 영광 불갑사 주지, 영광 마라난타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복암사에 주석 중이다. 백양사 인사위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전통불복장 단체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제5대 광주불교연합회장을 지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수석부회장에 월인 스님, 무등 스님, 명신 스님을, 감사에 상진 스님, 혜법 스님을 선출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2광주불교연합회 활동보고서' 책자와 활동사진자료집을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관음사, 제3회 삼천불 공양대재 회향

광주 도심 포교도량 관음사(주지 소운)는 11월 13일 '제3회 삼천불 공양대재' 회향식을 갖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포교원력을 세웠다.

삼천불을 공양하듯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포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1부 헌공의식, 2부 법요식, 3부 합동 천도재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소원정사 주기 도계 스님, 관음사 회주 효공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관음사는 이날 행사의 의미를 살린 청소년 장학금 200만 원과 충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돌봄이웃을 위한 희망나눔' 공양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도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많은 신도들이 나서서 삼천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참여해 관음사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소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지구생명 위기를 맞이하여 삼천 부처님을 공양하듯, 생명을 소생시키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나누우리, 정기총회 및 희망나눔 자선음악회

국제구호법인 사단법인 나누우리(이사장 만우)가 11월 12일 창원 내서읍 해병대사무실에서 제17차 정기총회 및 희망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나누우리는 앞으로 캄보디아 쁘레이톰초등학교와 삼부어초등학교에 정수시설 설치 및 선풍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신발, 백미, 구충제 등 8000만 원 상당의 봉사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도 지속적인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며 회원 배가 운동 등 역량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상곡문화체육센터에서 희망나눔 자선음악회를 열고 후원금 600만 원을 6명의 환우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지리산 천은사, 성금과 자비의 쌀 전달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는 11월 14일 구례군(군수 김순호)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과 쌀 200포(5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대진 스님은 전달식에서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의 고통은 심해질 수 있다"며 "이분들에게 사찰에서 마련한 성금과 공양미가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도 답변을 통해 "큰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리산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천은사는 매년 구례군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과 쌀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창종 11주년 기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이하 응공조계종)은 11월 11일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응공조계종 창종 11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대종사는 "수행을 하는 데 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바른 수행을 하기 어려우니,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한 법이라도 더 자신을 반성하고 자성을 밝혀 나가야 할 것"이라며 "큰 꿈을 품고 힘찬 날갯짓을 하는 뜻깊은 날, 사부대중은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첫 마음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 창원 성주사, 이태원 참사 추모 삼보일배



창원 불모산 성주사(주지 법안)가 11월 12일 경내 일대에서 삼보일배 정진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삼보일배는 '슬픔을 딛고 피안의 언덕으로'를 주제로 성주사 입구 일주문에서 대웅전 앞까지 이어졌다.

삼보일배에는 주지 법안 스님, 현덕스님, 김이순 신도회장, 포교사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회향식에서 "안타까운 모든 생명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속히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삼보일배를 통해 정진의 열기가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日, 코후쿠지서 동금당원 발굴 화제

〈東金堂院〉

**기존 학계 정설의 2배 규모**
**복원 여부에 학계 귀추주목**
**회랑 길이만 100m이상 눈길**
**내부구조 기존학설 '재검토'**

박영빈 객원기자

세계문화유산이자 천년고찰로 유명한 일본 나라의 코후쿠지(興福寺)에서 동금당(東金堂)을 중심으로 한 가람인 동금당원(東金堂院)이 새롭게 발굴돼 화제다. 그간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 규모의 2배 크기로 앞으로 복원 여부의 귀추에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코후쿠지는 669년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의 사찰로 건립 되어 오랫동안 나라의 7대 사찰 중 한 곳으로 번성했다. 여러 차례 전란과 정치적인 이유로 사세가 기울긴 했으나 여전히 나라의 대찰로 유명하다. 코후쿠지는 수많은 불교문화재와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8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동금당원은 726년, 쇼무천황이 상황인 겐쇼천황의 건강을 발원하여 건립한 구역으로, 코후쿠지의 자랑으로 불리는 목조 오층탑도 코묘황후의 발원으로 시기에 함께 건립됐다.

현재 동금당원은 사찰의 역사와 함께 모두 소실과 재건을 반복, 현재의 동금당원 건물은 대부분 15세기에 재건된 것이다.



새롭게 발굴된 코후쿠지 동금당원 유적.
사진출처=나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를 담당한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현존하는 동금당원의 서쪽을 발굴조사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 동금당 북동쪽의 약 330제곱미터를 발굴, 회랑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초석들과 3단으로 축조된 석조기단, 빗물 배수구 등을 발견했다. 특히 회랑초석의 흔적은 동쪽으로 더 뻗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문화재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확인 된 유적들과 더불어 회랑의 길이만 100m 이상으로 확인됐다. 발굴된 배수로의 길이만도 28m에 달한다. 회랑의 기둥은 모두 직경 30cm 가량의 기둥들을 세워 조성해 일반적인 회랑과의 차별성도 돋보인다. 이번 발굴로 동금당원의 규모가 기존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규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창건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발굴됐다고 전했다.

연구소 측은 "9세기경에 코후쿠지의 역사와 규모를 기록한 문헌들에서 본래 동금당원에 현존하는 오층탑과 동금당외에 다른 건물들도 존재한다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금당원의 내부 구조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가키나카 켄지 연구원은 "이번 발굴은 이 동금당원 구역에 대한 창건 당시의 규모나 성격을 새롭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왜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했는지? 동금당이 견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인지? 등 앞으로 추가되는 조사와 추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후쿠지사의 집사장을 맡고 있는 다카와 료슌 스님도 "나라에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쇼무천황과 코묘황후의 발원으로 세워진 동금당원이기에 평범한 발견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창건 당시부터 불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로 특별히 세워진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발굴조사는 지난달 말일로 종료됐으며, 코후쿠지와 나라문화재연구소 측은 "조사의 종료 후에도, 출토품의 정리, 분석이나 문헌 사료, 회화 자료 등의 재검토 등을 통해, 동금당원의 실체, 그리고 코후쿠지의 역사의 해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印, 국제불교도연맹 창립 10주년 기념식

**세계 불교 대표단 모여 룸비니 센터 건립계획 발표**

**11월 5일 뉴델리서… 화상회의도**
**"세계적 수준 시설 될 것" 기대**

국제불교연맹(IBC)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5일, 뉴델리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불교대표단들과 함께 기념식을 봉행했다. 비대면 화상 회의 프로그램도 함께 활용,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현대세계에서 불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에 대해 11월 8일 국제 불교 뉴스 전문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주빈으로 참석한 티베트 불교의 링 린뽀체가 단상에 모셔진 석가모니 불상 앞에 헌등 하는 것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IBC의 활동과 불교에 관한 단편 영화가 상영됐고, 네팔 룸비니에 건립될 '국제 인도 불교문화유산 센터' 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다. IBC 사무총장 아비짓 할데르는 올해 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네팔총리가 함께 탄생성지인 룸비니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의 지원하에 IBC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국제 불교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비짓 사무총장은 "성지순례자들과 불교문화에 관심을 가진 관광객들을 위해 룸비니에 세워질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센터는 부처님이 탄생후 첫 일곱 걸음을 걸었을 때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었다는 설화를 모티브로 연꽃 모양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부처님 생애의 주요 장소를 순례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교수행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와 네팔은 수년 동안 성지순례자들을 위해 각 순례지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이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여행경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IBC가 현재 룸비니 외에도 인도와 네팔정부의 협력 하에 각 불교성지들의 복원과 국제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IBC 공동 사무총장인 장춥 최댄 린뽀체 역시 "IBC는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달성했다. 모든 것은 불교의 국제화를 위한 전세계 불교도들의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뉴델리에서 열린 IBC 10주년 기념 법회에서 헌등하는 링 린뽀체(우측 끝).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이날 각국에서 모인 불교대표들은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국제화하고, 종교적인 담론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불교 가르침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불교대표 담바 아유쉬브 스님은 "인도와 러시아는 종교뿐만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근간에 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중생들에 자비를 가져야한다"고 발표했다. IBC는 이날 전세계 불교도들이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줄이고, 평화의 메시지를 더욱 넓히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불교 역할이 강조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기원전 1~3세기 간다라 불교 문헌 디지털 복원

**발견 필사본 중 最古 추정**
**석가모니 전생담 등 담겨**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간다라 불교문헌이 마침내 디지털 복원에 성공했다.

미국 시카고 매체 트리뷴 등 외신은 11월 13일 "기원전 1~3세기 작성돼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간다라 불교 문헌이 마침내 디지털화됐다"며 "이는 현대 보존 기술과 전통문헌연구학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지난 2세기 동안 발견된 다른 간다라 불교 문헌들은 분실되거나 파괴됐다"며 "이 문헌들도 발견 당시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지만 다른 문헌들에 비해선 보존 상태가 좋았다. 복원 작업을 거쳐 디지털화에 성공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고문헌은 자작나무껍질에 산스크리트어의 파생어인 간다리어로 필사된 두루마리 형태의 불교 경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전생담과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13명의 부처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돼 민간 수집가가 보관해 오다  현재까지 미국 국회도서관에서 보관돼왔다.



최고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간다라 불교문헌.
사진출처=트리뷴.

해당 매체는 워싱턴대학의 리차드 살로몬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이 문헌들이 부처님 승단으로부터 적통을 계승한 법장부(Dharmaguptaka)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디지털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 중에는 불교의 경전을 경(經)·율(律)·논의 3장으로 나눌 때에 논장을 일컫는 '아비달마' (Abhidharma) 관련 구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중국어로 기록된 문헌 등에 따르면 간다라는 아비달마 연구의 중요한 중심지였다"며 "이제 처음으로 (중국 문헌이 아닌) 간다라 아비달마 경전의 초기 사례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알려진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및 기타 번역본으로 된 초기 인도 불교 문헌들과 비교해 초기 간다라 불교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다라 민속과 전통 등 내용이 포함돼 기존에 발견된 문헌보다 더 당대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유나이티드항공, '불교도 차별'로 4억달러 배상

**종교적 이유로 AA 참석 거부 항공조종사에 패소**

유나이티드항공이 종교적 이유로 AA(익명의 알콜중독자 모임) 참석을 거부한 불교도 항공조종사에게 30만5000달러(한화 약 4억)를 지불하게 됐다.

11월 13일 야후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유나이티드항공이 알콜 의존증 진단을 받은 후 종교적 이유로 AA 참석을 거부한 소속 조종사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30년 동안 근무한 해당 조종사는 알콜 의존증 진단을 받고 연방항공청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분실했다. 이에 연방에서 보증하는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인증을 다시 취득하려면 AA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AA가 기독교 교리에 기원을 뒀다며 참석을 거부했다. AA가 제공하는 12단계 세부 프로그램이 '신을 인정해야 한다' 는 취지의 기독교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돼 종교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종사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항공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유나이티드항공 모습. 사진출처=야후뉴스

EEOC는 2020년 조종사를 대신해 유나이티드항공을 고발했고, 법원은 유나이티드항공의 이같은 조치가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장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종사에게 손해배상금 30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AA가 아닌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EEOC 소속 변호사 제프리 버스틴은 "고용주는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AA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직원을 위한 대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 박달 다듬이목으로 완성한 선재동자들

**목조각장 허길량 세 번째 개인전 개최**
**'박달 다듬이목 53선재동자 · 동녀 되다'**
**아리수갤러리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53선지식 찾아 걷는 동자 모습 모티브
연화 든 동자 등 다양한 동자상 선보여
다양한 표정 동자상 얼굴 표현에 집중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허길량 作, 53 선재동자 · 동녀.

허길량 목조각장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아리수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 '박달 다듬이목 53선재동자 · 동녀 되다' 를 개최한다.

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자동녀상 53점을 선보인다. 박달다듬이목을 소재로 한 허길량의 이번 동재동녀상은 53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걷는 천진난만한 동자의 모습을 모티브로 했다. 허 작가는 17년 전 박달다듬이목으로 조각한 108불 동자상을 완성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도록용 사진촬영 하루 전날 발생한 화재로 조각상을 모두 잃고 전시회를 열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허 작가가 17년 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불모로서의 발심과 원력을 회향한 뜻깊은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박달다듬이목에서 동자상으로 탈바꿈한 모습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진리를 옮긴 것으로, 천진무구한 동심을 바탕으로 53선지식을 찾아 구도의 길을 택한 53동자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혜를 찾고 자비를 베풀어 극락왕생을 바라는 연화와 연잎을 든 동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과일 · 꽃 · 찻잔 · 정병을 든 동자, 천상의 동물과 노니는 학 · 호랑이 · 사자 · 봉황을 든 동자, 명부세계의 선악을 기록하는 붓 · 벼루 · 장부 등을 든 동자, 구도의 실천 행을 따르는 합장한 동자 등 다양한 지물과 표정을 갖춘 목동자상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동자상의 의미는 인성의 본체로서 순수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고대의 수호신으로서의 동자, 신라시대 미륵의 아기부처, 고려시대 수월관음과 선재동자, 조선전기 오대산 문수동자, 조선 후기 불교의 선악동자 등과 같이 불교의 교리적 임무와 대상이 되었으며, 동자상이 표현하고자 하는 동심(童心)은 종교적 이상세계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허 작가는 동자의 순수성과 변함없는 박달나무의 작품을 추구했다. 재질의 강도가 가장 높은 박달다듬이목을 선택함으로써 기법의 난이도를 높여 작품 속에 '구도' 와 '정진' 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허 작가의 동자상은 정교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 허 작가는 해맑음, 궁금함, 미소, 흥겨움, 놀람 등 다양한 표정을 표현하기 위해 동자상의 얼굴 표현에 집중했다. 그리고 손에 든 지물들을 다양하게 나타내어 그 사상적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박달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살려 조각이 완성되고 표면의 박달나무 질감과 전통 옻칠을 결합했고, 많은 반복을 통해 최상의 정제칠을 올렸다. 그 효과로 박달나무와 옻칠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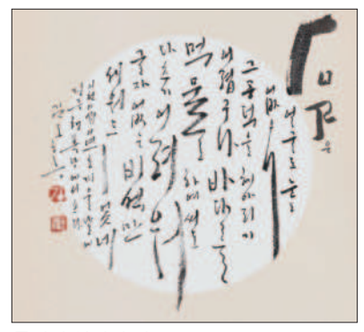
허 작가가 박달나무를 작품의 소재로 택한 이유는 특별하다. 한결같이 나무를 좋아했던 작가는 우리 산하의 소나무, 옛 마을의 당산나무인 느티나무, 기품을 갖춘 은행나무를 소재로 해왔으나 이번 전시 작품은 예로부터 우리의 삶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박달나무를 소재로 삼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박달나무를 신성시하여 〈건국신화〉에도 단군왕검이 박달나무 아래서 신시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단군의 '단' 은 박달나무라는 뜻이다. 한국의 생활문화에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재질이 무겁고 단단하며 변형이 없어 가구재 · 다듬이 · 조각재 · 곤봉 · 수레바퀴 · 홍두깨 · 방망이 등에 쓰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듬이목의 재료는 대다수가 박달나무이며 박달목 그 자체는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활문화에서 소외됐고,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골동으로 치부됐다. 그래서 작가는 박달목에 더욱 더 애착을 가지게 됐으며 오늘날 새로운 동자상을 탄생시켰다.

이번 허 작가의 53동자상은 평생을 목조각으로 조형성을 추구해온 허 작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오랜 숙련의 결과로써 작품의 표현과 표정에서 나타나듯이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얼굴의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로써 그가 수행과도 같은 목조각은 공성으로 일체의 업과 번뇌를 떨쳐버리는 해탈의 길로 걷는 것과 같이 그의 작품 세계의 본질은 천계(天界)와 현실을 오가는 존재, 인간 대신 공양을 올리는 존재, 연화 화생하는 존재로 재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박달목 동자상은 매우 독창적이고 우리의 전통성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된다.

허길양은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을 인정받은 후, 첫 번째 개인전 '33관음 속으로(2002)' , 두번째 개인전 '소나무 비천되어(2014)' 와 같은 대작 전시를 개최했다.

## 제2회 도홍 김상지 서법전 개최

**갤러리 경북 11월 23~29일**
**엑스포대공원 12월 24~28일**


무의자 선사의 시.

서예가 김상지가 제2회 도홍 김상지 서법전 '귀어초심(歸於初心)' 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1차 전시 는 서울전으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경북에서 열리고, 2차 전시는 경주전으로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2019년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서예공모전인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에서 대상인 '대한민국 서예대상' 을 수상(최연수 수상자)한 후 후학 양성과 소임을 병행하고 있다. 김 작가는 '귀어초심' 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서예, 현대서예, 캘리그라피, 전각 등 그 동안 발표해온 작품들과 최근 작품 등 60여 점을 선보인다.

'귀어초심' 이라는 뜻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가가 처음 붓을 잡았던 1998년 티끌 하나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붓을 잡고 공부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

김 작가의 은사인 홍법사 주지겸 회주 심산 스님은 증명에서 "서예가 김상지는 불심이 충만한 가정에서 태어나 근면 성실하게 한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자 청년 서예가이다. 이제는 서예의 덕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서예가 김상지의 덕을 보게 하는 원력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상지 작가는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대한민국천진서화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아동 · 청소년 화랑 서화 페스티벌(국제교류전) 운영위원장, 부산서화108인 초대전 기획 및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사단법인 한나래교육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사서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대규모 기획전**

# 현대문명 과학으로 '부처'를 본다

**'백남준 효과(Paik Nam June Effet)'**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다다익선 : 즐거운 협연'**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백남준 作, 'TV붓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탄생 9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이 백남준을 기리는 2개의 전시를 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9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6전시실에서 '다다익선 : 즐거운 협연' , 11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1,2 전시실 중앙홀에서 대규모 기획전 '백남준 효과(Paik Nam June Effet)' 를 개최한다.

'다다익선:즐거운 협연' 은 오랫동안 꺼져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인 백남준의 '다다익선(1988)' 을 대대적으로 복원해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전시다. 1988년 9월 15일 백남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모니터 1003대를 이용한 대규모 영상설치작품 '다다익선' 을 완성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다익선' 의 제작 배경과 현재까지 작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아카이브(약 200여 점), 그의 작품세계와 관련 자료를 새롭게 해석한 작가들(백남준, 구보타 시게코 등)의 작품 20여점으로 구성했다.

'백남준 효과' 는 백남준이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 기획했던 역사적인 전시 '백남준 · 비디오때 · 비디오땅(1922)' , '휘트니 비엔날레 서울(1993)' 의 주요 주제들을 통해 1990년대 한국미술의 상황을 새롭게 살펴보는 전시로, 백남준을 비롯해 총 27명의 작품 121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백남준의 작업들과 199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함께 병치하며 새로운 시대의 다음 장을 준비했던 이들의 복잡다단한 고민의 역사를 소환한다. 그럼으로써 근대적 희망과 세기말적 불안이 함께 타올랐던 1990년대의 한국적인 상황을 30년이 지난 현재로 불러들여 동시대의 대중과 함께 공유한다.

백남준은 장르 해체와 세계화의 바람으로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에서 절대적이고 불변이라고 여겨졌던 가치들이 상대적이고 덧없이 변해간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모니터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절대 진리인 '제행무상' 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다익선' 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그의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하고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런 그의 생각의 근원은 불교의 세계관이다. 그의 작품들은 불교의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많다. 그의 작품 'TV 부처' 는 자화상 같은 작품으로,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가 모니터 속 자신의 환영을 응시한다. 미디어 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진실에 대한 성찰을 모색한다. 부처를 현대문명의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관객과의 소통과 참여,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낸다. 박재완 기자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선재동자 구도여행 시와 그림으로 엮은 해설서



**입법계품지남도**
**불국선사 도찬**
**용학 스님 해설**
**맑은나라맑은소리 펴냄**
**2만8000원**



문수보살 십신근본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국선사의 〈문수지남도찬(文殊指南圖讚)〉은 53선지식을 찾아 떠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이 시와 그림으로 엮여있다. 〈문수지남도찬〉이 〈입법계품지남도(入法界品指南圖)〉 해설서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입법계품지남도〉해설서는 30여 년간 강원서 후학을 가르치며 전통경학을 연구한 강백 용학 스님이 해설한 책이다.

용학 스님은 해설서를 '역작'이라 불렀다. 이유는 시와 그림으로 명료하고 쉬울 뿐 아니라 선재동자가 만나는 선지식을 안내도처럼 표로 엮어 한자로 적어두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림을 보며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경전 공부를 해 한자에 능숙한 강백 스님들이 봐도 도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저자 용학 스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근기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투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같은 책"이라며 "화엄경은 다른 모든 경전과 연결되며 대승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중요 경전이다. 글을 모르는 분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상중하 근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은 송나라 불국선사의 〈문수지남도찬〉 대장경 목판본 작품에 채색을 더했고, 시를 국문으로 번역했다. 채색은 정기란 불교 일러스트 작가가 담당했다.

〈문수지남도찬〉은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가신 길을 가르쳐 안내하는 그림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신 길이란 환하고 밝게 자비와 지혜를 찾아가는 길을 상징한다. 선재동자는 구도의 길을 가는 모든 중생의 의지를 상징하며, 발보리심을 낸 수행자의 과정이며 목표이다. 책은 구도여행의 나침반 같이 수행자의 길잡이가 된다.



사진은 30여 년간 전통경학 연구한 강백 용학 스님.

**불국선사 〈문수지남도찬〉 채색**
**중생 근기 아우르는 쉬운 안내**
**선재동자 53선지식 친견 한눈에**

저자인 용학 스님은 "철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해마다 새로운 잎이 돋는데, 종일토록 산마루를 밟고 가면서 어리석게도 그 산을 찾고 있는 삼계(三界)의 나그네. 마음은 결코 마음을 볼수 없지만(心不見心), 그래도 이제 내 주머니에는 나침반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남도(指南圖)'"라고 밝혔다. 이번에 펴낸 〈입법계품지남도〉해설서는 방대한 〈화엄경〉에서 입법계품 근본법회와 후반 보현행원품까지 포함해 총 22권 분량을 요약했다. 책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 분류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수지남도〉에서 생략된 근본법회 여래회와 지말법회 보살회의 경문을 실었다. 두 번째는 지말법회 선재회이며 사라림에서 문수보살 법문을 듣고 발심한 선재동자가 남쪽으로 떠나 53선지식을 친견하는 내용이다.

용학 스님은 "선재동자가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 등 세 명의 비구를 먼저 친견하는 것은 삼보가 불교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세 번에 걸친 보살법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신심을 일으키는 선재동자는 중생의 발보리심을 상징하고, 관자재보살 친견은 자비와 지혜를 갖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수행을 의미한다. 마지막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친견은 일체 법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보여준다. 선재동자는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본래면목을 깨닫는다. 다시 만난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에게 마정수기를 주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용학 스님은 "문수보살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깨달음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선재동자가 자신이 부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각지(覺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재동자는 입법계품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재동자는 바로 일심(一心)을 말한다. 선재동자가 초발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담금질하는 모습은 치어(稚魚)가 먼 바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모천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대견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40화엄경(40권본)〉 마지막에 있는 보현행원 중에 항순중생(恒順衆生)을 경문에 실어 자비를 실천하고 정각을 이룰 것을 당부하는 마음을 담았다. 용학 스님은 "항순중생이란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인생의 이상향은 보현행원에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용학 스님은 1986년 해인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여천 무비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출가 후 30년간 강원서 전통경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경남 양산 수암선원에 주석하며 유튜브 불교한문경전 전문채널 '용학스님tv 木魚(목어)', 네이버 밴드 '수암선원 화엄산림'을 운영 중이다.

# "'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해 많은 고통 시작"



**잠자는 붓다 깨우기**
**정봉무무스님 지음**
**어의운하 펴냄**
**1만3천원**

정봉무무 스님의 첫 소참 법문집이 나왔다. 이 책은 지리산 홍서원을 방문한 불자들에게 스님이 들려준 소참 법문을 엮은 것이다. 열댓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수많은 문답이 오가면서 정봉무무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을 단도직입으로 들려준다.

이미 불자들 사이에선 입에서 입으로 스님의 법문은 퍼져나간 상태였기에, 법문집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스님의 법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다. 스님은 많은 이들이 '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많은 고통이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사성제의 핵심을 '집착을 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으로 본다. 집착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 밝혀낸다.

예컨대 스님의 속가에서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닌, 자기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 본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와 담배에 대한 집착이 도망가버리는 것이다. 한순간에 집착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집착이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 스님의 법문은 이렇게 성품을 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봉무무 스님의 첫 소참 법문집**
**사성제의 핵심은 '집착을 끊는 것'**
**집착, 많은 사례와 비유들어 밝혀**

스님의 법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점은 바로 '계'다.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점은 아주 당연하지만 불자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삼귀의계'다. 오계에 앞서 스님은 '삼귀의계'를 아주 강조한다. '업'은 스님께서 자주 강조한 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지은 수많은 악업이 얽혀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면 우선 그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생의 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지만, 또한 이번 생에 지혜롭게 사유하면 현생의 삶도 자유롭고 괴로움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지속하면 내 속에 있는 업이 보이면서 업이 붙을 자리가 사라짐을 경험한다고 전한다.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보라"는 것이다.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이다. 스님은 이근원통 수행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들 근기에 맞고 가장 수승한 방편의 가르침이 바로 이근원통 수행이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잣대를 세우고,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가장 공부하기 쉽고, 깨달음의 도를 이루기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아마도 초심자들에게, 또 불교지식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근원통 수행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스님은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외에도 정봉무무 스님은 불자들이 공부하면서 겪게 되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수행의 경계를 막힘 없이 들려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6~11/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법정스님이세상에남긴맑고향기로운이야기: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특별판 | 법정/김계윤 그림 | 불교신문사 |
| 2 | 에리히프롬과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4)존재양식과깨달음 | 박찬국 | 운주사 |
| 3 | 죽음을철학하는시간(죽음명상) | 이일야 | 불교신문사 |
| 4 |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 | 김원수 지음 | 청우당 |
| 5 |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 6 | 자애:성냄과여러위험에서자신과타인을보호하는법(법의향기다섯) | 일창 담마간다 편역 | 불방일 |
| 7 | 샐러드가필요한모든순간나만의드레싱이빛나는순간(개정판) | 지은경 지음 | 레시피팩토리 |
| 8 | 주경야선:가행정진으로재가자도성불할수있다 | 김원수 | 바른법연구원 |
| 9 | 스님의그림자:상담하는비구니의자기치유이야기 | 효록 | 운주사 |
| 10 | 눈으로듣고귀로읽는붓다의과학이야기(진화생물학과뇌과학,불교를만나다) | 김성철 지음 | 참글세상 |

책세상

# 명상, 경쟁의 삶에서 승리 위한 수단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전 명상**
자현 스님 지음
불광 펴냄
1만9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이라고 하면 뭔가 느리고 정적인 것, 현실의 삶과는 분리된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명상은 현실로부터 한 발자국 물러나게 하는 휴식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국내 최다인 6개의 박사 학위 소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18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한 열정적인 연구자인 동시에, 60여 권의 책을 펴낸 왕성한 저술가이기도 한 자현 스님이 가르치는 명상은 전혀 그런 명상이 아니다. 자현 스님의 명상은 현실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그 삶을 잘 살기 위한 수단이다. 한마디로 말해 그 명상은 경쟁의 연속인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직장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가고,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에 짓눌려 산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고독과 회한에 시달린다. 그 누구의 삶도 녹녹하지 않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현실 속에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길, 그럼으로써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저자인 자현 스님 본인이 그러했듯, 우리는 명상을 통해 그러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현실을 관통하는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실을 관통하는 명상은 우리의 마음에 자존감과 평정심을 고속충전시켜 준다. 우리는 이 자존감과 평정심을

**허약한 정신에 울퉁불퉁한 근육 키우자**
**일찍이 없었던 초절정 가성비의 명상법**
**현실에서 꿋꿋이 살아갈 비결은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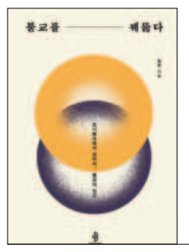
발판으로 하여 스트레스와 번아웃과 고독과 우울과 불안과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창의력과 지구력과 너그러움을 키울 수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고, 삶의 난관과 도전을 무사히 헤쳐나가 성공과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야말로 가상의 행복이 아닌 진실된 행복, 끝판왕으로서의 행복이다.

명상은 '무한한 흐름' 으로서의 '나' 를 자각하는 것일 뿐이다. 깨달음이란 '나' 를 바꿔서 또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감았던 눈을 뜨는 것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이 꿈 속에 있음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자각을 통해 무력화된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교실에 책상과 걸상이라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일단 불을 켜기만 하면 더 이상 그것들이 장애물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 자현 스님의 명상법이 요구하는 것은 더없이 간단한 3단계 과정뿐이다. 이 명상법은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것도, 애써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킬 고급스러운 기술을 배울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효과는 만점인, 초절정 가성비 명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자 **자현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한 후 동국대 불교학과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율장)와 동국대 미술사학과(건축) 그리고 고려대 철학과(선불교)와 동국대 역사교육학과(한국 고대사) 및 동국대 국어교육학과(불교 교육)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술학과의 박사과정(회화)을 수료했다. 동국대 강의전담교수와 능인대학원대 교수를 지냈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부서 교수와 불교학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월정사 교무국장과 조계종 교육아사리 그리고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및 상하이 푸단대학교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다.

# 수십년 공부 회향, '초기불교서 선까지'



**불교를 꿰뚫다**
등현 지음
불광 펴냄
2만5천원

등현 스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체험하고 종교에 빠져들었다. 유가의 가르침과 도가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두루 섭렵하다가 결국 출가를 결심한다.

출가 후에도 스님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많은 의문들과 싸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굳게 의지하던 믿음까지 흔들렸다. 등현 스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무너졌다. 계율에 대한 의식이 무너지고, 괴로움의 진리가 무너지고, 항상 고요와 평온 속에 머무는 무심삼매가 무너졌다. 나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스님은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싶었다. 특히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래서 스님은 스리랑카로 가서 남방계를 받고 7년 동안 빠알리어 초기 경전을 공부했다.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 수행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인도로 가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힌두 경전을 공부했고, 다시 또 7년 동안 대승 경론을 공부했다. 한국에서 출발해 스리랑카를 거쳐 인도까지 찾아간 오랜 구도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 끝에 대승이 나에게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반겨 주었다. 나의 여행이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귀국 후에 스님은 자신이 공부하고 깨달은 바를 불교계 신문에 '초기불교에서 선까지' 라는 제목으로 3년 2개월 동안 연재했다. 등현 스님은 대중에게 널리 이름이 알려진 스님이 아니었고, 연재한 글 또한 세간의 이슈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님의 연재 글은 불교계의 화제가 되었다. 중국불교의 교상판석은 물론, 원효 스님도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회통불교의 모습, 불교의 일미(一味)를 21세기의 언어로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종류의 글도 드물었지만, 그런 글을 쓸 만한 역량을 가진 인물은 더더욱 드물었다. 그 바람에 스님 주변의 인물들은 스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책은 '초기불교에서 선까지' 의 그 연재물들을 고치고 다듬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1부 '초기 · 부파불교의 수행론' 에서는 여러 초기 경전과 〈구사론〉에 나오는 수행론을. 2부 '대승의 수행론' 에서는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수행론과 〈십지경〉에 나오는 수행론을. 3부 '선종의 수행론' 에서는 〈능가경〉에 나오는 수행론과 달마선 및 조사선의 수행론을 각각 다룬다.

불교는 교학이기 이전에 실천 수행이다. 이 점에 착안해 등현 스님은 복잡다단한 불교의 수행론을 자세히 분석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이 책의 목표는 단지 불교 수행론을 가르치는데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불교 수행론을 논의 주제로 삼아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가르침과 궁극적인 목표를 치열하게 규명해 나간다. 이 책이 제시하는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과 궁극적 목표는 저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초기불교에서 선불교에 이르는 장구한 불교사를 샅샅이 살펴본 저자의 식견에 기반한 것이며, 불교사에 명멸한 여러 상이한 불교적 사유들에 대한 면밀한 교통정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불교 수행론 논의 주제로 삼아 불교 전체 관통하는 핵심과 목표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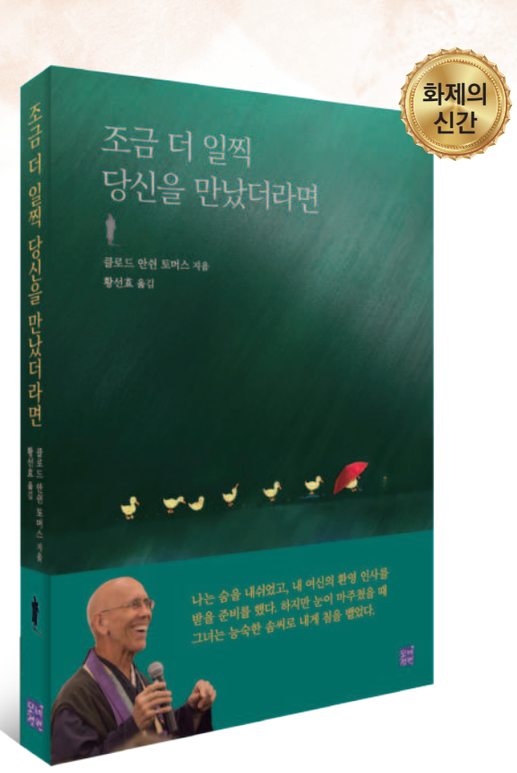
저자는 여러 가지 불교적 사유라는 퍼즐 조각들 각각에 대해 맞춤한 위치를 찾아주었고, 그 결과 그 퍼즐 조각들은 서로 아귀가 맞게 연결돼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불교의 '한 맛(一味)' 이라 칭한 것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큰 그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 큰 그림을, 불교의 '일미' 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조우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저자 **등현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에 사미계를, 1989년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3년부터 20여 년간 스리랑카 · 인도 ·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하면서 빠알리어 · 산스크리트어 · 티베트어로 된 불교 원전을 공부했다. 이후 12개국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태국 'International Buddhist College'에서 3년간 강의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원장 소임을 맡고 있으며, 중앙승가대서 강의중이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1

▶ 92회 예고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에게 〈초전법륜경〉 등을 암송해주고 외도들의 교설을 설법해준다. 이윽고 아쇼까왕은 외도로 의심되는 수행자들을 한 사람씩 심사한다. 그리하여 외도로 판단되면 흰 옷을 입혀 아쇼까라마에서 추방한다.



# 아쇼까왕, 목갈리뿟다띳사 설법을 듣다

빠딸리뿌뜨라성이 보이자마자 목갈리뿟다띳사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아쇼까라마를 떠난 지 7년 만에 보는 성이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지난 일들이 고요했던 마음을 출렁이게 했다. 강가강 나루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목갈리뿟다띳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쇼까라마 정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말인가.'

아쇼까왕이 담마마하마따를 파견해 아쇼까라마를 관리하고 있고, 장로들이 우뽀사타와 빠와라나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외도들이 숨어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짠드라굽따왕과 빈두사라왕뿐만 아니라 아쇼까왕까지 여러 종교 수행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온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외도들이 불교사원인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면서 계율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므로 7년 전 이때쯤 아호강가산으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라마로 먼저 가서 마힌다의 꾸띠를 찾았다. 그 꾸띠는 자신이 머물렀던 처소이기도 했다. 마침 마힌다는 사문들과 함께 우뽀사타 법회를 마치고 오고 있는 길이었다. "스승님, 오셨군요."

"대왕님께 바로 가야겠으니 안내해 줄 수 있소?"

"방금 법회를 마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뽀사타야말로 사문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우뽀사타뿐만 아니라 빠와라나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 우뽀사타와 빠와라나를 중지하겠다고 선언을 했소만 두 법회를 되살려 이어오고 있다니 고맙소."

"다만 외도들이 슬그머니 끼어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몇 달 전에 마힌다가 아호강가산으로 와서 외도를 추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쇼까왕뿐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아쇼까라마에 1천 명의 장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대왕님은 외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소?"

"승가의 보호자로서 반드시 외도를 추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왕님께 붓다의 어떤 가르침부터 설법했으면 좋겠소?"

"붓다께서 처음으로 다섯 수행자들에게 설했던 초전법륜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힌다 장로는 초전법륜경을 어떤 경이라고 생각하오?"

"붓다께서 설한 가르침의 시작이자 모든 진리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힌다를 시중하는 사미가 항아리에 손발을 씻는 강가강 강물을 가져왔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손과 발을 씻고 나자 마힌다가 말했다.

"아침 일찍 대왕님을 뵈었습니다. 대왕님은 스승님의 설법을 몹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힌다가 목갈리뿟다띳사를 왕궁까지 안내했다. 마힌다는 왕궁을 수시로 드나드는 장로였으므로 왕궁 정문 수문장은 아무런 검문도 하지 않았다. 수문장 옆에 있던 경비부대 조장이 목갈리뿟다띳사를 검문하려고 하자 마힌다가 제지했다.

"대왕님께서 부르시어 아호강가산에서 오신 장로님이오."

"아, 그렇습니까. 장로님."

"대왕님은 어디에 계시오?"

"예, 대왕님은 가족 분들과 함께 후원에 나가 계십니다."

왕궁 후원이라면 아쇼까왕이 가끔 장로들을 초대해 공양을 베푸는 장소이기도 했다. 후원 살라나무들 밑에는 장로나 구루들이 공양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아쇼까왕이 설법을 청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은 장로와 구루들이 긴장했다. 아쇼까왕의 눈에 들면 후원에서 일산이 펴진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두말띠 꽃들이 떨어져 마치 붉은 천을 깔아놓은 듯했다. 과연, 아쇼까왕의 가족들은 과일이 놓인 야외식탁에 앉아서 짜이를 마시고 있었다. 마힌다와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쇼까왕 앞으로 가서 합장을 했다. 아쇼까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장로님이시여, 어서 오시오."

"대왕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로님의 설법을 기다렸소.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들을 수 없겠소? 내 가족에게 행운을 주고 싶소."

그제야 아쇼까왕의 가족들이 목갈리뿟다띳사 앞으로 와서 엎드려 절하며 합장했다. 아상디밋따 정비, 띠쉬아락시따 왕비, 아쇼까왕의 손자 삼빠딘, 아상디밋따를 시중하는 우두머리 궁녀 띠사락슈미 등의 순서로 목갈리뿟다띳사의 발에 오른손을 대는 인사를 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처음 보는 삼빠딘의 머리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 주었다. 삼빠딘은 여러 왕손들 중에서 지략이 뛰어난 데다 용맹해서 아쇼까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꾸날라의 아들이었다.

꾸날라는 탁실라 부왕 때 두 눈을 실명한 채 성 밖으로 나가 탁발승이 되어 떠도는 상태였고, 그의 측근 심복들은 이웃나라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띠쉬아락시따의 음모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사람에 불과했다. 책임이 있는 탁실라의 세습 대관들도 아쇼까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띠쉬아락시따의 음모를 비밀로 묻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삼빠딘을 축복해 주자 누구보다도 아상디밋따가 좋아했다. 아상디밋따는 꾸날라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모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띠쉬아락시따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꾸날라가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자 그를 탁실라로 보낸 뒤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띠쉬아락시따였던 것이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나는 더 기다릴 수 없소.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법해 주시오."

"예,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는 마힌다와 사전에 설법할 경을 미리 정해두었으므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모든 경의 근본이 되는 초전법륜경을 설법하려고 했다. 물론 목갈리뿟다띳사는 초전법륜경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었다. 경을 암기하는 것이 장로와 사문의 차이였다.

아쇼까왕은 자신의 자리를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양보한 뒤 가족들이 있는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았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다.

"붓다께서 삡팔라나무 아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지 7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붓다께서는 이 진리가 너무나 심오해서 어려우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어 진리를 설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붓다의 생각을 안 범천 사함빠띠는 붓다께 나아가 눈에 먼지가 덜 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해주기를 청하였고 붓다께서는 설법을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붓다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고행을 하면서 시중들던 다섯 수행자를 생각하시고 진리를 설하시기 위해 삼보디(보드가야)에서 녹야원(사르나트)으로 가셨습니다.

붓다가 오시는 것을 보고 다섯 수행자들은 인사는 물론 시중도 들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위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정중히 모시게 되었고 붓다로부터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하신 최초의 법문이 바로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신 내용의 〈초전법륜경〉입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중도와 사성제, 팔정도를 설한 붓다의 가르침을 아쇼까왕 가족들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는데 병색이 완연하고 바짝 야윈 아상디밋따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다. 꾸날라를 많이 닮은 삼빠딘은 큰 눈을 두리번거릴 뿐 아쇼까왕처럼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경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씨빠따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섯 명의 수행승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시작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극단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착을 일삼는 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배우지 못한 일반사람의 소행으로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고행을 일삼는 것도 괴로운 것이며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며 무익한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수행승들이여, 여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앎을 생기게 하며 궁극적인 고요, 곧바른 앎,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앞에 놓인 짜이로 목을 축인 뒤 이번에는 붓다가 다섯 수행자에게 설한 '사성제' 와 '팔정도' 를 그대로 들려주었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도 괴로움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줄여서 말하자면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이 모두 괴로움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갈애이다. 곧,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비존재에 대한 갈애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 소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고귀한 길이다.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새김, 올바른 집중이다.〉

그때 아쇼까왕은 경비대장의 귓속말을 듣고는 목갈리뿟다띳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목갈리뿟다띳사는 〈초전법륜경〉 후반부 설법은 초저녁으로 미루었다. 아쇼까왕이 바로 처리해야 할 공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에 예정돼 있던 공무였다.

'내가 장로님의 설법을 듣느라고 잊어버렸었군!'

갑자기 목갈리뿟다띳사가 설법을 멈추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띠쉬아락시따였다. 아쇼까왕의 눈치를 보면서 몸을 자꾸 흔들면서 꾸날라를 연상시키는 삼빠딘을 쏘아보곤 했던 것이다. 아상디밋따는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다 듣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리에서 가장 늦게 띠사락슈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아쇼까왕은 서둘러 집무실로 돌아왔다. 아쇼까왕 집무실 앞에는 각 도시로 파견될 신임 담마마하마따들이 임명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느라고 담마마하마따 임명장 수여식을 깜박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계속〉

불기 2567(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임인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7(2023)년 계묘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본 사 | T. 02)2004-8204 | F. 02)737-0698 |
| 경남지사 | 010-3860-7008 | 성낙두 |
| 부산지사 | 010-5640-8883 | 이도경 |
| 대구지사 | 010-6780-9190 | 배철완 |

| | | |
|---|---|---|
| 전남지사 | 010-2629-1508 | 양행선 |
| 전북지사 | 010-8642-7733 | 조동제 |
| 영주지국 | 010-9373-3778 | 박영애 |
| 문화사업단 | 010-3048-4008 | 구광국 |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0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KB(국민)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22 고려 선승의 구도수행 – 지눌로부터 혜심으로

▶한줄요약
우리나라 선종 간화선은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이 심각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둘을 회통시키고 독창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했다.



# 선교 양종 회통하고 간화선 수행법 마련

### 1. 한국 간화선의 기틀을 마련한 지눌

우리나라 선종 간화선은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이 심각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둘을 회통시키고 독창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했다. 지눌의 수행법은 오늘까지 세간과 출세간 선수행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눌의 아버지 정광우는 오늘날 국립대학 교수 격인 국학학정(國學學正)이었으니 가정 형편은 좋았다. 그러나 지눌은 날 때부터 병약했다. 아들의 병만 낫게 해주시면 부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고 서원을 올리자 곧 병이 나았다. 8세 때 종휘(宗暉)를 스승으로 출가했고 25세에 승과에 합격했다. 승려로서 영달을 보장받지만 마다했다. 보제사 담선 법회에서 도반 10여 명과 "명리의 길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정혜를 닦자"고 다짐했다. 고려 선불교를 중흥하려는 서원을 가진 지눌인지라 함께 수행할 도반을 우선 찾은 것이다.

지눌은 요세(了世, 1163~1245)가 많은 수행 대중을 이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결사를 함께 꾸리자며 편지를 보냈다. 그 뜻에 공감한 요세가 지눌이 있던 거조사(거조암)로 왔다. 득재(得才)도 동참했다. 1190년 거조사에서 〈정혜결사문〉을 반포하고 정혜결사를 시작했다.

하근기 중생에게 천태선의 일심삼관(一心三觀, 일심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空, 假, 中 세 측면에서 관하는 관법)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한 요세는 빠져나가 1216년 만덕산에 800여 칸의 절을 지어 백련사결사를 시작했다. 지눌의 정혜결사는 요세의 백련사결사와 쌍벽을 이루며 고려 중후기 선을 부흥시켰다.

송광사에 터전을 마련한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을 이끌었다. 〈기신론〉, 〈원각경〉, 〈금강경〉,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고 이통현(李通玄, 635~730)의 〈신화엄경론〉과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대혜보각선사어록〉 등을 참조해서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徑截門) 등 삼문(三門)을 만들었다. 성적등지문이 마음을 성성하고도 적적하게 만드는 수행이라면, 원돈신해문은 가장 원만한 화엄의 교리를 믿고 이해하여 일순간에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수행이고, 경절문은 곧바로 본래 면목을 터득하여 부처가 되게 하는 간화선 수행이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단계와 방법을 달리 설정한 것이다.

무신란과 민란이 연이어진 사회적 혼란기에 스승 없이 구도의 길을 걸어야 했던 지눌은 자기의 수행에 대해 치열하게 거듭 성찰했다. 수행지도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수행 상황과 경지에 대응하여 저서를 펴냈다. 정혜결사를 이끌면서 〈정혜결사문〉과 〈수심결〉을 내놓았고, 수선사의 청규로서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를 펴냈다. 화엄과 선을 회통시켜야 했던 상황에서 〈원돈성불론〉을 펴냈고, 선불교의 사상사와 수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절요〉를, 독자적 간화선 수행법을 마련하기 위해 〈간화결의론〉을 펴냈다.

### 2. 세 번의 전의 혹은 깨달음

지눌은 간화선 수행법을 완성시키기까지 3번의 전의(轉依)를 경험하거나 깨달았다. 먼저 25세였던 1182년 창평 청원사에 주석할 때였다.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킴에 비록 육근이 견문각지(見聞覺知)하더라도 어떤 사물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한다."는 〈육조단경〉의 구절을 보는 순간 경이와 환희심을 경험했다. 마음속에 진여자성이 언제나 그대로 있음을 깨닫고 전의한 것이다.

**1190년 거조사서 정혜결사 시작**
**송광사서 정혜쌍수 수행 이끌어**
**수행법 완성까지 3번 轉依 경험**
**〈선문염송〉 '지눌-혜심' 큰 업적**
**혜심, 일미선(一味禪) 주창·실천**



보조 지눌의 진영.

두 번째 전의는 28세였던 1185년에 경험했다. 하가산(예천 학가산) 보문사에서 3년 동안 〈대장경〉을 열람하면서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화엄경〉 여래출현품을 읽었다. 한 티끌이 모든 경전을 담고 있다는 가르침에 이어서, "여래의 지혜도 한량없고 장애가 없어 널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면서도 중생의 몸 안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어리석은 중생은 망상에 사로잡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구절을 본 지눌은 경책을 정수리에 올리고 눈물을 흘렸다. 중생들을 깨닫게 할 방법을 고민해 오던 중, 그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통현(李通玄, 635~730)의 〈신화엄경론〉을 찾아 읽고는 화엄에도 돈오의 문이 있음을 알고 화엄적 돈오의 길을 마련했다.

1198년 41세가 되었다. 보문사로부터 지리산 상무주암으로 옮겨간 지도 10여 년이 지났다. 부지런히 수행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낸 적은 없으나, 정견(情見)을 내려두지 못하니 뭔가가 가슴에 걸려 마치 원수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전의 두 번 깨달음에 미진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대혜보각선사어록〉을 읽다가 "선(禪)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다.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과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곳과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구하지 말라. 홀연히 눈이 열리면 그 모두가 집안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크게 깨닫게 되었다. 가슴에 걸려있던 원수 같은 물건이 사라져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구체적 삶 속에서 펼치는 선의 활발발한 작용을 터득함으로써 생활선을 꾸리게 된 것이다.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이라 인정되는 바, 그것이 생애의 분기점을 마련했다. 1200년 송광사로 옮겨가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자비를 베풀고 교화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 3. 무자화두 병통 제시와 간화선법 완성

지눌은 자기 깨달음을 근간으로 하여 간화선 수행법을 정립하고 무자(無字)화두 10종병(種病)을 제시했다. 이는 간화선을 이끈 대혜 종고도 이르지 못한 영역이다.

선지식이 수행자에게 주는 화두는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재미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맥락적 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식(情識)이 깨뜨려 지지 않았으면 번뇌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의심의 대상인 화두를 든다. 가령 어느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조주 스님이 '없다[無]' 라고 답했다. 이 화두를 의심하며 집중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빠져들어서는 안 될 10가지 화두 들기의 병폐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있다, 없다라고 이해하지 말라." "이치가 그렇겠거니 생각하지 말라."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거리는 것이 자기 진면목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자기의 진면목이라 여기지 말라." "경전을 인용해서 이해하지 말라." 등이다. 화두 수행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서 베풀어진 선지식의 자비인가를 알 것이다. 화두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떤 경지에 떨어져서 헤매곤 하는데, 이들 사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눌이 제시해 준 무자화두 10종병의 사례는 장애에 걸려 힘을 허비하게 될 화두 수행자에게 베풀어진 강력한 경책이 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자량이 된다.

### 4. 스승 지눌과 제자 혜심의 만남

진각 혜심(慧諶, 1178~1234)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며 한국불교사의 으뜸 자리에 있어야 할 저서 중 하나가 〈선문염송(禪門拈頌)〉일 것이다. 간화선 화두 1125칙을 모아서 염과 찬송을 붙인 것이다. 이 방대한 저서의 출현이야말로 '지눌-혜심'의 사제 관계가 이룩해낸 고려 선불교의 쾌거이며 민족 문화 유산의 비약적 고양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혜심은 어머니가 출가를 허락하지 않아 유학을 공부했다. 23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에 들어갔지만, 어머니가 타계하여 바로 지눌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혜심은 치열하게 정진했다. 반석 위에 앉아 온종일 선정에 들었고, 오경(五更)이 되면 게송을 읊었는데, 10리 밖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지리산 금대암에 있을 때는 연좌대 위에서 좌선을 했는데 눈이 내려도 삼매에서 깨어나지 않아 눈 속에 파묻혔다. 대중이 다가가 흔들어도 대답이 없으니 죽은 줄만 알았다고 한다.

1205년 가을, 혜심은 광양 백운산에 머물고 있던 스승 지눌을 뵈러 길을 떠났다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스승이 계신 암자가 아득한데 스승의 음성이 들려왔다. 게송을 지었다. "아이 부르는 소리 소나무 겨우살이의 안개에 울려 퍼지고/ 차 달이는 향기 돌길 바람에 전해오네" 제자를 위해 스승이 달이는 차의 향기가 아득한 곳 제자에게 전해지고 그에 감동한 제자가 게송을 지어 바치는 장면이 아름답다. 이 장면은 스승이 제자를 인가하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이규보가 지은 지눌의 비문에서다.

"지눌이 '조주의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들어 보이고 무자화두에 대한 '간화선의 열 가지 병통'을 들어 보이니 혜심만이 대답했다. '세 가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만이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지눌이 되물었다. '세 가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숨을 쉬고 있는가?' 혜심이 손으로 창문을 한 번 내리쳤다. 지눌은 크게 웃고 방장실로 돌아가서 몰래 혜심을 불렀다. '내 너를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는 불법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그 본원을 바꾸지 말아라.'"

스승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제자에게 전했다. 법맥을 이어주는 증표다. 의발 대신 부채를 받은 제자가 다시 시를 지었다. "전에는 스승 손에 있던 것/ 오늘 제자 손에 이르렀네/ 세상 번뇌 뜨겁게 들끓으면/ 맑고 시원한 바람 일으켜 주리."

혜심도 지눌과 같이 정혜쌍수를 인정했지만, "망상을 여의는 데는 간화선만한 것이 없다."며 간화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눌이 만든 삼문(三門)이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면, 혜심은 삼문을 하나로 아울러 간화일문(看話一門) 혹은 일미선(一味禪)을 주창하고 실천했다. 어떤 근기이든 화두 참구 앞에서 평등해졌다.

〈연세대 객원교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사사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91
• 주 지 : 혜안
• 승 번 : 11–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승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91
• 주 지 : 도광
• 승 번 : 18–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승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이안의 Media In Buddha ④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한줄요약
방대한 세계관을 바탕하고 있는 마블 시리즈에는 9000여 명의 히어로가 있다. 이중 불제자다운 영웅이 있으니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세계관은 〈법화경〉의 '회삼귀일' 사상과 맞닿는다.

# '회삼귀일' 가르침 바탕한 히어로 수행자

동서양 남녀노소가 특별한 거리낌 없이 함께 즐기는 영화 장르 가운데 첫 손을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도 공상과학으로 번역되곤 하는 SF(Science-Fiction) 장르다.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원인과 결과에 엄격한 과학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무한대로 펼쳐 실제가 아닌 세계를 만들어내는 허구적 이야기와 결합하면서 빚어내는 SF는 먼저 작가와 관객 사이에 어떤 전제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세계관.

소설이든, 만화든, 영화든 SF 장르에서 자주 쓰이는 이 세계관이란 게 도대체 뭐지? 철학적 개념? 과학적 정의? 아니면 문화적 통념? 세계관을 그냥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어떤 장르나 특정 작품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라기보다는 저마다 속한 집단이나 믿는 종교, 이어 받은 문화의 역사적 맥락 등에 따라 관점은 다르니 딱히 합의할 성질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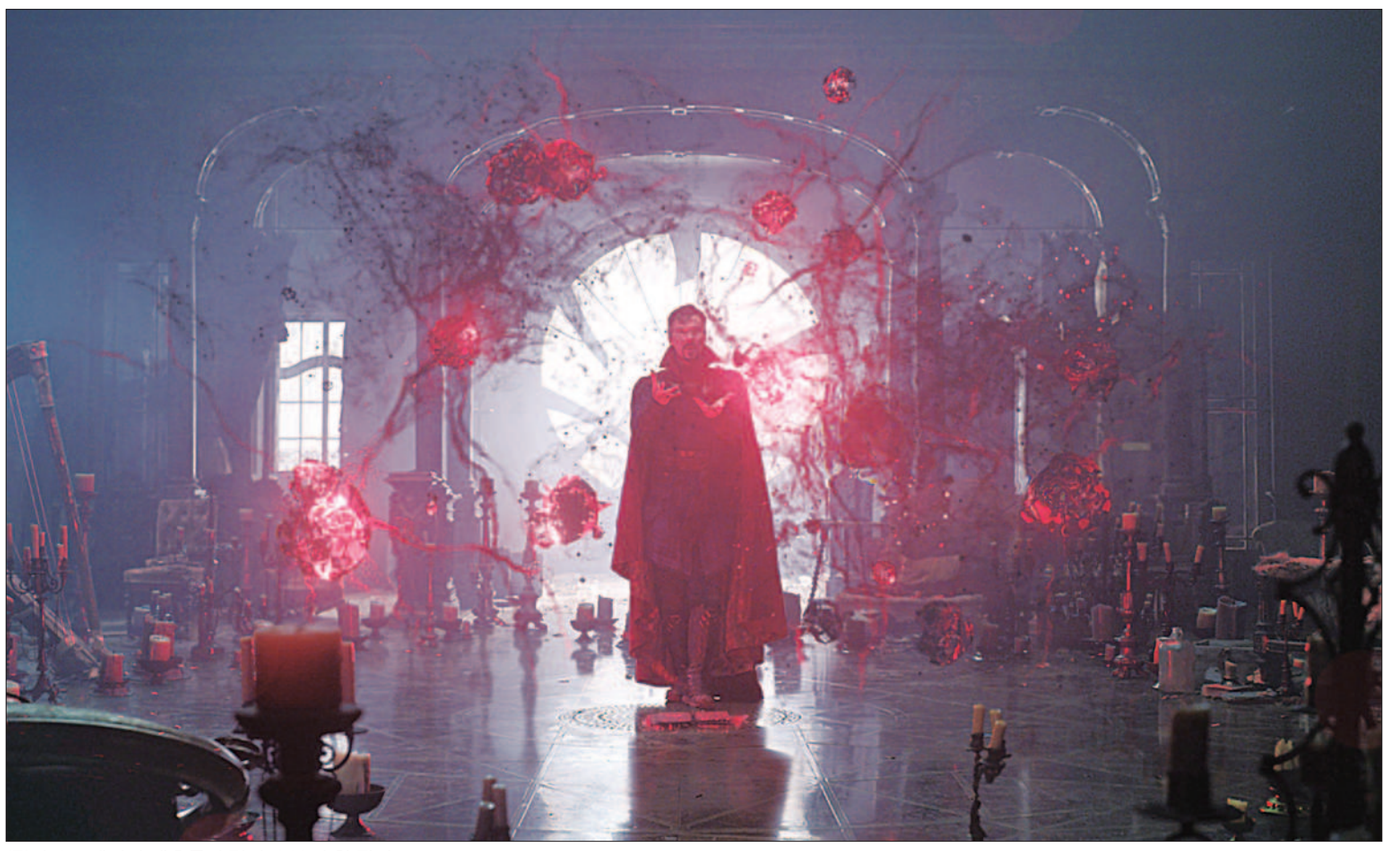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세계관이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으로 구성된 것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객관적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현실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세계를 보는 인간 주체에서 비롯된 창조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인지한 세계를 묘사하는 세계상과 다르다.

즉, 세계관이란 인간의 존재와 행위가 자신의 바깥에 펼쳐진 세계라는 환경에 대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의미 부여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세계와 인간의 위치에 대해 세계관을 제시하는 일은 철학이 다룰 몫이고, 객관적 실재인 세계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세계상을 밝히는 일은 자연과학의 몫이라고 여겨왔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 전반에 대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관은 세계 전체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제공하면서 인간이 주위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보는 철학은 시대와 문화, 진영, 계급 등 온갖 사회적 맥락에 따라 권력을 다투는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SF 장르에서 왜 중요한 것이 되는 걸까?

SF에서 세계관은 현실 세계와 아주 다른 허구의 도시, 국가, 행성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세계와 역사를 가져오면서 일부 사실을 비틀기도 하고, 마법이나 초광속 등 판타지나 과학 소설 속 개념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세계를 먼저 설정한다. 현실 세계와 다른 사건 또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허구적 가공세계에 대한 일관된 설정을 일컫는다. 소설, 만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에서 SF나 판타지의 배경이 되는 상상으로 창조된 허구 세계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것이다.

흔히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의 세계관을 문제 삼으면 지구 최고의 군수산업 사업가에서 인공심장을 가진 슈퍼 히어로로 거듭 나서 군산 복합 정치와 싸우는 아이언맨도, 소심한 과학자가 자기 안에서 공포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변신해서 이성을 잃고 폭주해서 악당을 패대기치는 헐크도, 거미 유전자 덕분에 놀라운 감각과 운동신경을 얻게 되어 평범한 청소년의 정신연령과 슈퍼히어로의 신체능력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스파이더맨도, 남보다도 허약한 청년이었다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과학 실험에서 영웅적 군인으로 거듭나서 전쟁을 이끌고 사라졌다 냉동상태에서 풀려나 특수방패 하나만 있으면 어떤 초능력과도 맞서 싸우는 불사조 캡틴 아메리카도, 심지어 이들이 우르르 한데 모여 외계에서 침략해오는 타노스 일당과 맞서 싸우는 다양한 캐릭터의 향연인 어벤저스 시리즈는 아예 이해할 수도 즐길 수도 없을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의 한 장면.

> 방대한 세계관 바탕한 마블 시리즈
> 불제자다운 영웅 '닥터 스트레인지'
> 2편서 '멀티버스' 세계관으로 확장
> 삼승은 결국 일승으로 귀결된다는
> 법화경 '회삼귀일' 사상과 맞닿아

이 시리즈 안에는 독자적인 시리즈의 주인공인 캐릭터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 사라지는 조연급 캐릭터도 있고, 조연급 캐릭터였다가 자기만의 시리즈로 따로 발전해 가는 캐릭터도 있다.

9000명에 이르는 마블 코믹스 캐릭터 가운데 불제자 하나쯤 있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다. 만화 캐릭터로 처음 등장한 1963년에는 서양 전승 마법사 이야기 설정에서 비롯된 모순된 인물이었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다지 대중적 캐릭터가 아니었다. 생명을 중시해야할 의사가 자기 의술이 뛰어난 것만 믿고 오만방자한 삶을 살다가 자동차 사고로 자신감의 바탕이던 손을 다쳐 더 이상 수술을 못하게 되자 망가진 손을 치료하러 티베트의 카마르타지를 찾아가서 에이션트 원에게 훈련받아 마법사로 거듭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교적이라기보다 서양 마법사 이야기가 동양적 배경을 적당히 이용한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니 '소서러 슈프림'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가 21세기에 영화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타노스에게 뭇 생명의 절반을 잃게 된 세상을 구원하는 어벤저스 전체의 부활과 승리를 이끌게 된 것은 바로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능력과 구도의 자세, 중생에 대한 제도를 이끄는 책임감 덕분이다.

원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마법사로 각성시키는 '태고로부터의 일자'라는 뜻을 영어로 옮긴 에이션트 원이라는 티베트 노인이 영화에서는 주홍색 승복을 입고 삭발한 승려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소림사'와도 같이 무예와 마법을 수행하는 제자들을 이끄는 선지식으로 바뀌면서 멀티버스 자체가 어벤저스를 승리로 이끌고 중생을 제도할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1960년대 이후 잊혀진 캐릭터에서 21세기 어벤저스를 윤회전생하게 만든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은 불교에서는 낯설지 않은 세계관이다.

지금까지 인간 존재와 세계, 우주에 대해 밝히고자 했던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갖는 공통 관심사는 '우주와 자아는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미래의 종교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교리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밝히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미래의 종교를 일컬어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설명하기를 "우주 종교적 감정(Cosmic religious feeling)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다를 수 없다는 신념을 상대성 이론에 담아 펼친 것이고, 이 상대성 이론은 불교적 우주관인 '연기법'의 과학적 설명인 셈이라는 것이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하는 제일 원인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라고 본다.

불교의 우주관은 여러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이 대부분 원형 그대로 담겨 있어 불교의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아함경〉 중 〈세기경〉에서는 순환우주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또한 '대승경전의 꽃' 또는 '모든 경전 중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성문과 연각,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인 삼승은 결국 일불승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했던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평행우주에서 우리는 이미 부처를 만났으나 지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이런 불교적 우주관에서 볼 때, 깨우침을 추구하는 대승적 불제자가 인간세상의 공업을 돌파하는 수행과 실천의 과정의 영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꿈에서 악마에게 쫓기는 소녀를 구하려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던 것도 닥터 스트레인지 자신이고, 그 꿈은 그저 망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했던 다른 우주이고, 그 우주의 경계를 넘어 악마를 피해온 지금 이 우주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결국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이 처음 꿈속에서 소녀를 위험에 빠뜨렸다가 죽어야했던 다른 우주의 닥터 스트레인지였다는 설정은 '회삼귀일'의 SF 버전으로 보면 재미있다.

등장하는 에피소드에 따라 때로는 마녀 스칼렛 위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벤저스의 동료인 완다가 되기도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대적하는 캐릭터는 이 평행우주 멀티버스 안에서 또 다른 수행자가 된다.

빌런과 슈퍼 히어로를 오가는 '완다/스칼렛 위치'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이어서 쌍둥이 형제도 잃고, 안드로이드 연인이었던 비전도 잃고, 오직 다른 멀티버스에서 다른 완다의 두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현세에서 벗어나 멀티버스 안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완다는 광대무변한 우주를 지배할 최강 빌런의 위치까지 갔다가 마침내 윤회전생의 업을 스스로 끊어내기에 이른다.

"멀티버스에는 모든 것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샘 레이미 감독의 말이 바로 이 세계관, 불제자에게 수행의 의미를 우주적 스케일로 보여주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의 영화적 화두일 것이다.

〈영화평론가〉


불교 상용의식집을 소개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漢文/한글(겸용)불교 상용의식집을 편찬한 성묵스님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신앙생활이 바뀌듯 경전도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한글을 보유한 민족으로 그동안 한문경전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알기쉬운 우리말 경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말)예경/각청・수계/방생편(11)권과...천도/시식・장의편(12권)을 통합하여 2권으로 축소 편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곳 TEL. 054-974-1345 HP. 010-7144-7339 (총무)

아울러 함께 창종 발기인으로 종단을 시작하실 대덕스님들을 모십니다.
이미 종단은 2020년에 허가와 종단협회 가입까지는 완료됐으나 코로나 관계로 중단되어 다시 출발하려고 하오며, 현재 종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함께 하실 뜻이 있으신 대덕스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연락주시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 010-5277-8024 (성묵 스님)



# Monthly Bultube

오늘날 유튜브는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동반자가 됐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각양각색의 콘텐츠를 수시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대체 유튜브의 무엇이 불자들을 사로 잡았을까?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쥐어졌다는 건, 영상에 대한 선택권과 영상의 소비량도 이에 비례해 늘었다는 걸 의미한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각종 강연이다. 예전과 같으면 선택권이 한정된 TV에서 소외당하는 분야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각종 강연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문학

## 지혜의 빛 '불교철학 입문'

youtu.be/fakCDA_-8gE

SCAN ME

약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지혜의 빛 : 인문학의 숲은 2013년 유튜브를 시작한 국내 1세대 인문학 채널이다. 인문학을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는 유익한 채널 유튜브 '쉽고 간결한 인문학' 등으로 다양한 인문학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 채널에서 10월 27일 업로드한 '불교철학 입문: 붓다의 세계관에 담겨있는 진실' 은 불교철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는 강의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영상은 초기불전 자료에 기초해 부처님의 교설에 담겨 있는 근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상은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진실,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나?, 연기와 무아, 팔정도 그리고 자기 객관화, 니르바나, 기억속의경전, 붓다 최후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팔리어 삼장' 에 대한 소개와 20세기 이후의 현대 불교학(Buddhology)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전하고 있어 유익하다.

지혜의 빛은 영상과 함께 인도에서 불교가 융성한 후 쇠락해진 이유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인도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쇼펜하우어와 불교의 비교 분석 강의도 전개한다.

조회수는 12만 6245명으로 좋아요는 3800명에 달했다. 댓글에서는 "불교에 대한 철학까지 지혜의숲은 모르는게 없다. 명강의로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제가 인도철학과 불교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정말 수준높은 강의를 만나게 됐다. 불교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도철학사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히 깊이가 있는 강의였다" "불교 강의를 들어보지만, 알기 쉽고 내용도 있고,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현대적 해석까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등 댓글이 달렸다.

쇼 츠

## BTN불교TV '누워계신 마애불'

youtube.com/shorts/2KJTW2rlqVA?feature=share

SCAN ME

10월 31일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개인들은 서원을 성취하고 나라는 부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며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입니다."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된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겠다는 불자들의 원력이 한데 모여 고불식을 연 것이다.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교를 바로 세우겠다는 원력이기도 하다.

마애부처님이 누워있는 열암곡의 공간은 매우 비좁다. 이러한 상황에서 BTN불교TV는 현장감 있는 영상을 담아냈다. '아이구야' '대단하다' 등 처음으로 넘어진 마애부처님을 본 스님들의 가감없는 목소리가 담겼다.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가 참...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할텐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의 짧은 쇼츠 영상은 11월 4일 업로드 된 이후 4만 3127회의 조회수와 945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댓글에서도 넘어진 마애부처님의 생생한 모습을 본 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전해졌다. "어쩌다가 이런 참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등이 남겨졌다.

8세기 후반경의 조성된 열암곡 마애불상은 1550년경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인해서 전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발견 이후 경주시에서는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존 정비 방안을 마련, 2021년 10월 경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불교계가 원력을 결집하는 사업으로 전개되는 경주 남산 마애불 바로세우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법 문

## BBS불교방송 '다시보는 명법문, 청화스님'

youtu.be/mhrVCvizQcU

SCAN ME

BBS TV에서 방송 된 '큰스님께 듣는 깨달음의 길' 청화스님편에 대해 BBS불교방송은 10월 23일 '업이란 무엇인가, 최상의길 최선의길' 을 주제로 영상편집하여 노출했다. 2003년 2월 성륜사 동안거 해제법회에서 청화 스님이 한 법문을 기존 2편에서 1편으로 다시 편집하였다.

청화 스님은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법호는 무주(無住)로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대화상을 은사로 출가해 진불암, 사성암, 벽송사, 백장암, 상견성암, 상원암, 남미륵암, 칠장사 등에서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로 임했다. 스님의 청정 수행은 많은 감화를 일으켰다. 1985년 전남 곡성군 동리산 태안사에서 3년 결사를 시작으로 대중교화의 원력을 세우고 곡성 태안사를 중창 · 복원하며 구산선문 중 하나인 동리산문을 재건했으며, 미주포교를 위해 카멜 삼보사, 팜스프링스 금강선원 등도 건립했다. 스님의 법문은 조회수 7만 3113회에 2,000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유튜브 등 손안의 미디어를 통하여 쉽게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댓글을 달았다. 댓글에는 "고맙습니다.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생에도 스님 계신곳에 태어나길 발원드리며 다음 생엔 좀 더 가까이서 스님 뵙길 발원 드립니다" "석가의 가르침과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 나의 전생이 눈에 보이고 앞으로 후생까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생애 최선을 다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씨앗을 뿌리고 뿌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청화 스님을 유튜브에서 만나뵙게 돼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등이 달렸다.

강 설

## 자현 스님의 세가불 '개도 알아듣는 불교'

youtu.be/3dZC2_VWJ80

SCAN ME

헬로붓다TV는 (재)대한불교진흥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4만 2000명을 자랑한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동국제강 창업주이자 불교 현대화에 헌신한 대원(大圓) 장경호(張敬浩, 1899~1975) 거사의 불교 중흥을 위한 서원과 보시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진흥원은 1975년 설립된 이래,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기치 아래 시대상황에 맞는 불교진흥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현대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불교의 현대적 조명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삶의 윤활유를 제공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헬로붓다TV에서 명법문으로 유명한 자연 스님을 새롭게 초빙했다. 채널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세가불)다.

1회로 자현 스님은 '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불교' 라는 강연을 했다.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내용임에도 오히려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자현 스님의 장점. 스님은 '주식 투자' 등 일상생활에서 느낀 체험담을 섞어 좌중들을 들었다 놨다 한다. "국민기업 삼성이 10만원을 간다고 해서 다들 주식을 샀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가. 불자들은 그래도 3만원까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마음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스님은 이어 "우리가 마음이 마구 흔들리는 것, 불안한 감정에도 삼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삼성이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삼성의 몫이다. 평소에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댓글에는 스님의 유쾌한 강의를 들은 이들이 좋은 댓글을 남겼다. "깊고 어려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타고난 능력에 노력까지 하는 자현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설법제일 자현 스님 정말 멋있다. 통찰과 관통으로 다방면의 내용을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 "스님, 대학생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딱 맞는 강의입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 청빈한 스님들에게는!

## 마이크 하나만 바꾸셔도 법당 소리가 놀랍게 달라지는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소개법 : 전화 하시면 귀 사찰 부근을 지날 때 겸사겸사 들러서 마이크소리 비교 테스트!

마이크소리 테스트 비용 : 한잔

3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및 마이크만 바꿈도 2천여 사찰!

▣ 본품은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시설상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증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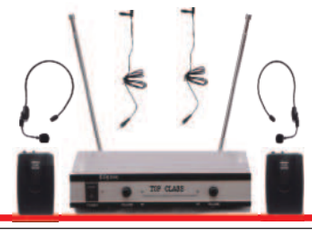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각종 "재" 전문 무선시스템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 | |
|---|---|---|
| 가루자죽염 | 125g | 45,000원 |
| 가루자죽염 | 230g | 82,000원 |
| 알갱이자죽염 | 125g | 50,000원 |
| 알갱이자죽염 | 230g | 90,000원 |
|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 20g | 9,000원 |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20,000원 |
| | 250g | 10,000원 |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 의생신(意生身), 무명주지 의지 때문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㊹ 의생신(意生身)

〈원문〉 "세존이시여, 또 마치 번뇌의 연(緣)과 유루업(有漏業)의 인(因)으로 삼계(三界)를 내는 것같이 무명주지의 연과 무루업(無漏業)의 인으로 아라한·벽지불·대력(大力)보살들의 세 가지 의생신(意生身)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와 저 세 가지 의생신이 나는 것과 무루업이 나는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의생신과 무루업(無漏業)이 모두 무명주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애주지(有愛住地) 등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와 업이 같지 않나이다. 무명주지를 여의는 것은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서 부처님 지위에서 끊는 것이며, 부처님의 보리(菩提)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었으나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재한 힘을 얻지 못하며,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나 벽지불 그리고 맨 마지막 몸(最後身)을 받은 보살은 무명주지에 덮였으므로 저마다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알지도 보지도 못하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끊지 못하였으므로 허물이 남은 해탈이라 하고, 허물을 모두 여읜 해탈이 되지 못하므로 미완성의 청정이라 하고, 완전한 청정이라 하지 못하며, 더 성취할 게 남아 있는 공덕을 성취했을 뿐 완전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자람이 있는 해탈과 모자람이 있는 청정과 모자람이 있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모자람이 있는 고(苦)를 알았고, 모자람이 있는 집(集)을 끊었고, 모자람이 있는 멸(滅)을 증득하였고, 모자람이 있는 도(道)를 닦았으니, 이것을 부분적 열반[少分涅槃]을 얻었다 합니다. 부분적 열반을 얻은 이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향하는 것일 뿐 무명주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강설〉 무명주지(無明住地)는 오주지(五住地) 가운데 가장 끊기 어려운 마지막 것으로 근본무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의 사주지(四住地)의 번뇌를 끊었다 하더라도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면 번뇌가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승(二乘)이나 대역보살이 얻은 열반이 소분열반이라고 한 것은 무명주지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명주지가 남아 있으면 아집은 끊었으나 법집(法執) 남아 있는 것이 되고, 번뇌장(煩惱障)은 끊었으나 소지장(所知障)이 남아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승의 수행을 평가 절하하여 법공(法空)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의생신이란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이라는 뜻이다. 의성신(意成身)이라고도 한다. 오온에 의해 구성되는 몸이 아닌 의온(意蘊)에 의해서 구성되는 몸이다. 이 의생신은 불보살의 경우와 범부 중생의 경우가 다르다. 중생의 의생신은 잠자다 꿈속에 나타나는 몸처럼 정혈(精血)의 연을 빌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의생신이라 하지만 업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사람이 죽은 다음,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때까지의 중유 기간 곧 영가로 있는 상태도 의생신으로 본다. 그러나 불보살의 경우는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원력으로 의생신을 나타낸다고 한다. 특히 부처님의 경우는 여의불(如意佛), 혹은 수락불(隨樂佛)이라 한다.

불교의 일반적인 교설로 볼 때 삼계라는 세계가 무명에 의한 중생의 업에서 생기고 다시 무명의 힘에 의해 미계의 의생신이 생긴다 한다. 물론 이 무명이 끊어진 부처의 지위에서도 의생신은 중생의 의생신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기는 것이다.

대승불교가 일어나고부터 열반의 개념이 달라졌다. 열반(涅槃)이란 원래 범어 Nirvama를 음사한 말로 적멸(寂滅), 멸도(滅度), 원적(圓寂)이라 번역한다.

열반을 유여열반(有餘涅槃)과 무여열반(無餘涅槃)으로 나누는데 이 장에서 아라한이나 벽지불은 무명주지에 덮여 무명이 남아 있으므로 아직 번뇌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 "끝없이 의심해야 큰 성취 얻어"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㊼ 선정수행 조건과 깨달음 위한 조절법

세 번째는 대의심(大疑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큰 의심(大疑) 끝에 대오(大悟)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크게 의심할수록 크게 깨친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무(無)라고 했는고?' '이것이 무엇인고?' 등의 알 수 없는 공안(公案)에 대한 불같은 의심(疑心)을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에 대한 해답은 책이나 학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도 소용이 없고, 경전을 통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하는 놈이 무엇인고? 이뭣고?' 성날 때도 '이뭣고?' 슬플 때도 '이뭣고?' 망상이 생겨나도 '이뭣고?' 어느 때나 '이뭣고?'를 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 답을 알 수 없는 화두가 항상 눈앞에 성성하여 생활 속에 화두가 항상 들릴 때만이 대도 성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화두를 놓쳐 버리고 온갖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며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끌려 가게 되면 바로 마구니 지옥에 떨어지거나 귀신굴에 빠져 마귀와 함께 노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정·삼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켜야 하고, 두 번째는 과거세에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예경과 권청과 수희와 회향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을 일으켜 용맹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참선을 통해 선정삼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3. 깨달음을 위한 몸과 마음의 조절법

불자 여러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과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위한 훌륭한 참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호흡과 마음을 조절해야 합니다.

**△첫째,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깨달음을 위한 훌륭한 참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숨이 급해지고, 모든 혈관이 잘 통하지 않아서, 마음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몸이 허약하게 되고 마음이 배고픔에 걸려서 뜻과 생각이 고정되지 않아 선정·삼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럽고 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독한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몸의 구성요소가 서로 뒤틀리게 되어서 병마가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위한 올바른 참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잠을 조절해야 한다.**

참선을 할 때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마(睡魔)입니다. 수마를 쫓기 위해서는 평소에 잠을 충분히 자두어서 수면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을 적게 자기 위해서는 평소에 적게 자는 습관과 수련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참선을 통해 수마를 쫓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참선을 위해서는 미리 적당한 수면을 취해 두거나 평소에 잠을 적게 자는 수련을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감정(五情)이 어둡게 가려져 손발을 제멋대로 놓고 육체가 쓰러져 누워 깊이 조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잠은 무명이 미혹하여 마음을 덮어 버리는 것이니 만큼 잠을 제멋대로 설치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도리어 참선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참선 수행한 수행력을 잃게 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선근을 침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세월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반드시 수면을 조절하고 항복시켜 정신력으로 생각과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잠을 조절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 머무르게 되어 깊은 선정·삼매가 이루어집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㊹ 앙굴리말라의 경

## 진리는 모양과 소리에 있지 않다

**앙굴리말라는 세존께 시로써 이와 같이 물었다.**

**"수행자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추었다'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어라'라고 말한다. 수행자여 나는 그대에게 그 의미를 묻는다. 어찌하여 그대는 멈추었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굴리말라여, 나는 언제나 일체의 살아있는 존재에 폭력을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언어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일상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어떤 범위를 정해 놓았으니 따로 유추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의 언어들은 그때의 뉘앙스(nuance)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언어는 완성이 없고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겨울이라는 단어는 겨울이 있어 겨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겨울이라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제각각 변화한다. 지역과 문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언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고 다양하다.

그렇다면 스스로[無我]에게 언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의식이 가진 이원성의 언어를 벗어나 일원성에서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버리고 움직임 없는 본질을 드러내는 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뭇 삶이 스스로[無我]가 사용하는 언어의 조합을 엉뚱함으로 느끼는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정성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 때문이다.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에 잡혀있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정된 사고력으로 보게 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는 언어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선정(禪定)'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육조 스님은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定)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래는 모양과 소리가 아니다."와 다르지 않다. 진리는 모양과 소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선가(禪家)에서는 "수행 중에 책을 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 자칫 잘못 이해해서 책 자체를 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 경을 읽을 때 글자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다.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언어의 고정된 고집이 생겨나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수행에 가르침[經]이 없으면 어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가르침은 예외 없는 바탕의 불변성에 대한 공유이고, 진리는 뭇 삶들의 본바탕인 것이다. 본바탕은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지만, 뭇 삶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흐름 속에 존재하면서 가진다는 마음, 가졌다는 마음, 가질 것이라는 마음을 내어,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노력한다. 잠시 집중하는 노력은 손으로 그 물을 가둬두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달마대사와 동시대의 선승 부대사(傅大士)의 선시를 보면, 언어가 가지고 쓰임새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다. 이때 다양하다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숨어 버리는 표현이다. "빈손에 호미를 들었고 걸으면서 물소를 탔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는 흘러도 물은 흐르지 않는다." 선시(禪詩)의 내용은 둘 째 치고 앞뒤 문맥이 맞는 구석이 없다. 그러나 바탕의 불변에서 보면 어느 하나 빠짐없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문맥도 바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이 '나[無]'이고 무엇이 '나[無]가 아님'을 모른다면 천년만년 언어 속에 파묻혀 헤매는 일이 되는 것이다.

눈으로 제 눈은 보지 못하지만, 천하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엄동설한에 부는 찬바람이 제아무리 세차게 불더라도, 움트는 싹을 어찌 하겠는가.

〈(사)여시아문 선원장〉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413호 | 17 | 전면광고

어진 이는 진리를 이해해서 듣고, 그 진리를
실천한다.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부지런히 배운다면 지혜로운 이,
분별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이가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범음 · 범패

범음범패, 각단예불의식,
천수바라, 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1528-7 금륜사
전화 010-7579-8200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관 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 상담문의 ▣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 공양주 모십니다

- 영산법화사 홈피 : http://ysbuphwasa.org/
- 영산법화사 소개 :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대한민국 제일 법화도량입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2장, 기본증명서 1통
- 4대보험 가입 월급 195만원 ~ 250까지 (월 휴무 2일) 출퇴근도 가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16 영산법화사
- 상담 문의 : 02)762-4922 / 담당 총무 도엽 010-8737-2766

재단법인 영산법화회 이사장 행 학

##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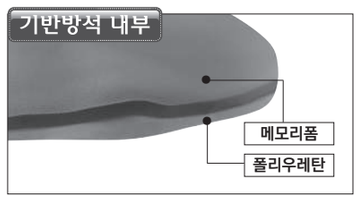
| 종류 | | 크기 | | | 수량 |
|---|---|---|---|---|---|
| 향로(스텐) | 特大 | 지름: 20cm | 높이: 18.5cm | 내부: 13cm | 5kg |
| 향로(스텐) | 大 | 지름: 17.5cm | 높이: 18.5cm | 내부: 11.5cm | 3kg |
| 향로(스텐) | 中 | 지름: 13.5cm | 높이: 16cm | 내부: 10cm | 1.5kg |
| 향로(스텐) | 小 | 지름: 12cm | 높이: 12.5cm | 내부: 8.5cm | 1kg |

세 계 최 초

##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 | |
|---|---|
| 가로 | 45cm |
| 세로 | 32cm |
| 높이(뒷면) | 8cm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413호 | 18 | 전면광고

어리석음이 더욱 미련해지지 않게 하며
성을 내며 억지로 원수를 짓지 않게 하며
다섯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쁜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잡종지 내의 대지 143평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 양도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 사찰·암자안내

●위치 : 부안 개암사 ~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토지 5만평, 한옥 1채
●가액 5억원(일시불 3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5년간 분할상환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010-9647-0723

## 토 지 안 내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약 130평, 836번지 약 300평
●4년전 포크레인 작업, 조용하고 청정지역, 아담하고 포근한 자리, 샘물 나옴
●절터, 산소자리 적합
●3천5백만원에 건강상 양도

010-7628-9997

## 사찰(급)안내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431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가액 : 3억원

010-4835-1739

## 사 찰 ( 급 ) 안 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법당인등 1천불, 영가인등 1천불
●100미터 지하석수, 실외 화장실 2개, 상수도, 5미터 도로, 심야보일러, 에어컨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안양 명학역 도보 10분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약 55평(법당, 주방, 침실, 서재)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010-5495-4678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지 : 90평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 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 사 찰 ( 급 ) 안 내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령1동211-164(62-2) (마산 제일 여고 뒤)
●임야(자연녹지)1800평, 대지 60평, 전(땅)120평, 법당 20평, 요사채
●가액 : 3억5천만원

010-8762-9870
010-9978-5453

## 사찰(급)안내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건강상 시가 이하로 6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 금곡면
●202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방5개, 화장실2개
●자급자족 할수있는 텃밭 200평, 주변 주차공간 많음 진주시 10분거리
●가액 : 2억5천만원

010-7661-4060

## 사 찰 안 내

●주소 : 창원시 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236-19
●삼면이 멋진 바다 용궁사를 사정에 의해 양도, 양수합니다
●건평 100평 1,2층, 대지 350평
●전세금 2천만원, 월 50만원
●언제든지 입주 가능
●한번 보시면 탄복합니다

010-4233-3459

## 사 찰 안 내

●청주시청 앞 사찰건물 전세 ●9층건물 6층 불교대학, 7층 대웅전, 각층 100평 최고시설 ●동삼존불, 대웅전50평, 산신각10평, 종무원20평, 스님접견실 20평, 샤워실 ●전세2억원 / 보증금5천만원 월150만원(시설비상담) ●주차장 완비,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010-5700-1350
010-5883-2255

##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거제시
사찰 법당 3채 및 요사 1채
대지 : 136평 규모
가액 : 3억원
가격 절충 가능

010-4509-4061

## 명 당 안 내

●암자, 명상원, 산속찻집, 문화원으로 적합함
●위치 : 지리산 하동 악양면
●청학골 전설의 두계곡 물이 합수하여 정원수가 됨(해발 200여m) 100여m 청석 반석으로 물이 감아 흐름
●723평, 평당 30만원

010-8637-3872

## 사 찰 안 내

●익산마을 끝자락 조용한 곳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산신각 요사채 문화재급 약사여래불 모심, 법당집기 일채 포함
●사유지 포함 약 1,000평의 법당, 3억 5천만원

010-5581-308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 찰 안 내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 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 임법당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북부지역
●대지 : 326평, 본채40평, 별채40평, 공양간10평, 큰창고 2개, 방7, 욕실3, 화장실4, 산신각, 지장전
●가액 : 4억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08-0377

## 멋진사찰(급급)안내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대지 : 약 173평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요사채 : 1동 약 23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 부산지사 | 이도경 | T 051-405-9402 | H 010-5640-8883 |
| 경남지사 | 성낙두 | T 051-512-1761 | H 010-3860-7008 |
| 대구경북지사 | 배철완 | T | H 010-6780-9190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T 062-512-5003 | H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T 063-910-8977 | H 010-8642-7733 |
| 영주지국 | 박영애 | T 054-634-3429 | H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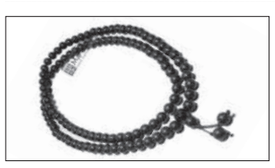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 절집나무이야기

㉒ 강원도 강릉시 소금강 금강사 은행나무

# 반듯한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순간

인도 겸 차도를 따라가다 끝자락에 다다르기까지 금강사가 보이질 않는다. 널찍한 나무계단 위 小金剛(소금강) 표지석을 이고 있는 '대한민국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받침돌 뒤편도 단풍든 나무로 벽을 치고 있다. 이제 경운기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좁은 등산로로 들어가야 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산행 차림에 당황하는데, 즐거운 탄성이 나온다. 도시 인근 산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람쥐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민감해 청정 지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귀염둥이가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다.

깊고 그윽한 계곡에 가을단풍이 내려앉아 흐르는 듯한 물살을 보며 걷는다. 잠시 뒤 '깃대종이 무엇인가요? - 국립공원에서는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징적인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라는 안내판이 눈길을 잡아챈다. 그러면서 오대산 깃대종으로 노랑무늬붓꽃과 긴점박이올빼미 사진이 있다. 둘 다 보고픈 열망을 갖고 철다리를 건너 숲을 보니 또 다른 안내판이 주목을 요한다. '1569 율곡 유산(遊山)길 스탬프 보관함' 이다.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난 율곡 이이는 16세 되던 1566년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삼년상을 치른 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유학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금강산입산을 하게 된다. 그 이유를 풀어보면, 과거에 급제해 사회적 성공을 일굴 것이냐, 아니면 불교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완성하겠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일단 도학(道學)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금강산에 있는 동안 남긴 노승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율곡이이가 불교를 떠나 다시 유교로 회귀한 연유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부분만 옮겨본다.

[율곡:"'소리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이것은 색(色)이오 공(空)이오." 노승:"색(色)도 아니고 공(空)도 아님은 진여(眞如)의 체(體)요, 이런 시로 어떻게 빗댈 수 있단 말이오."]



은행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금강사

전체 대화를 정리해 해석한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글을 보면, "유교는 언제나 일상적 '언어' 로 말하지만 그를 통해 노리는 것은 '상대' 가 아닌 '절대' 입니다. 그 절대는 '일상성' 을 떠나지 않기에 오히려 불교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제가 불교를 떠나 유교로 향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고, 아울러 노승을 설득시키려는 근본적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젊은 사람이 말을 걸었으니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 같은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 떠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소금강이 주는 아름다움에 진하게 빨려 들어가다 보니 길옆 돌계단 위로 금강사가 번쩍 나타난다.

하지만 문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걸려 있어 조금 더 직진해 일주문을 찾는데 느티나무 옆으로 돌계단이 나타난다. 오르니 곧바로 대웅전이 보이는 금강사다. 연혁이 궁금해 두리번거리는데 안 보인다. 그래서 강릉시 소개글에 나온, 1964년 정각 스님이 창건한 절이라는 것만 되뇌고는 경내를 서성인다.

아담하지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대웅전의 기상은 주위의 험준한 산세를 단숨에 뛰어넘어 언제든 동해로 갈 수 있는 반야용선의 위용이다. 그 옆 금강사 현판을 달고 있는 요사채와 생명수 우물을 보호하고 있는 전각 사이의 장독대들이 불편한 산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건네준다. 그 뒤 삼성각 위로 뻗어 올라가는 나무들도 따뜻한 병풍이 되어 생존지수를 올려준다.

율곡 이이가 1569년 이곳을 찾아 본래의 이름인 청학산 대신 소금강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었다면, 학이 날개를 달고 나는 청학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금강사 부도 옆에 노랗게 단풍 든 은행나무에 선다.

20만 년 전 지구에 나타나 100년을 사는 생명체가 2억 년 전에 등장해 천 년 이상을 의연하게 사는 은행나무를 올려보니 말로 문자로 주고받는 인식의 세계가 초라해 보인다. 성균관 거목 은행나무가 실상은 살구나무 행(杏)을 오독해 벌어진 풍경이라고 하니 공자든 부처든 나무 아래에서 나온 말은 모두 하나이고 그래서 언어 따위는 피어나지 못하는 낙엽보다 못하는 듯하다. 은행알이 냄새가 나는 건 그 향기를 기꺼이 품어 번식을 시켜주었던 매개 동물이 이미 멸종이 되었는데도 그 그리움을 버리지 못해 남기는 절규이다. 그런데도 거의 사람의 삽목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은행나무에 대한 책임 앞에서 코를 움켜쥐는 행동만 일삼을 뿐 반듯한 문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인간종(種), 유구무언이다.

하산길에 귀한 다람쥐 조우를 염원했지만, 가녀린 물소리만 귓가에 들이친다. 금강산이든 소금강이든 차가 도달하는 사찰이든 걸어서만 가야 하는 산사이든 본래 그러한 진여(眞如)의 체(體)는 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아닐까. 어디선가 바스락 다람쥐 움찔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 불교시 감상

㉑ 정일근의 색과 공에 대한 변주

# 色의 삶은 무엇, 空의 삶은 무엇인가?

색(色)과 공(空)에 대한 변주(變奏)/ 정일근

1. 색즉시공(色卽是空)

평생을 쪽잎 속에 숨은 푸른색을 찾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쪽빛을 자랑하지 않았으므로 누구도 그의 푸른색을 보지 못했다. 그의 쪽빛은 세상 어느 그릇에도 고이지 않고 세상 어느 옷감 한 올도 물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돌아간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만 떠돌았다. 다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쪽빛에 물든 듯 그의 눈빛은 청(靑)에서 람(藍)으로 람(藍)에서 백람(白藍)으로 변해갔다. 어느 깊은 여름밤 그를 만나러 가다 홀로 광목에 쪽물을 들이는 그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둥근 항아리 삼아 온몸 가득 쪽물을 머금었다 다시 입으로 뿜어내며 무명 광목을 푸르게 푸르게 물들였다. 아아, 그분이 미륵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저러하려니 최초의 푸른빛이 퍼져 나와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속에 또 다른 푸른빛이 퍼져 나왔다. 그 빛 속에 다시 우주가 태어나고 그 우주 속에 새 빛이 태어나는 장엄한 탄생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꿈결 같은 시간이 흘러 새벽이 오자 그는 그의 쪽빛을 빨랫줄에 무심히 걸어놓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진 뒤 너무나 신비스러워 조용조용 다가가 그의 푸른색을 들추는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빨랫줄에는 아무런 형체도 색도 걸려 있지 않았다. 그 허공으로 내 몸이 일탈하고 있었다.

2. 공즉시색(空卽是色)

보석반지는 영롱한 보석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손가락이 들어갈 허공이 있어야만 보석은 비로소 반지가 된다. 빛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하는 텅 빈 허공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

–정일근 시집, 《경주 남산》, (주)문학동네, 1998–

불교는, 모든 것이 시의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된다. 아무리 관념적인 것일지라도 그려놓고 나면 당당한 실체가 된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한 명이 정일근 시인이다. 이 시만 봐도 알 수 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은 퍽 어려운 관념적 불교용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시인(작가)이 그리면 눈으로도 잡히고 손으로도 만져진다. 분명 "쪽잎 속에 숨은 푸른색을"[색(色)] "찾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누구도 그의 푸른색을 보지 못했다"[空(공)]. "그의 쪽빛은 세상 어느 그릇에도 고이지 않고 세상 어느 옷감 한 올도 물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늘로 돌아"가기[空(공)]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깊은 여름밤 그를 만나러 가다 홀로 광목에 쪽물을 들이는 그를 보았"는데 "그는 자신의 몸을 둥근 항아리 삼아 온몸 가득 쪽물을 머금었다 다시 입으로 뿜어내며 무명 광목을 푸르게 푸르게 물들였다"[色(색)]. "아아,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미륵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色가(색)]였고, "그가 사라진 뒤 너무나 신비스러워 조용조용 다가가 그의 푸른색을 들추는 순간 내 손에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빨랫줄에는 아무런 형체도 색도 걸려 있지 않았다"[空(공)]. (그리고) "그 허공으로 내 몸이 일탈하고 있었다"[空(공)]. '색즉시공' 을 (가시적으로) 기막히게 잘 풀어놓았다.

다음 연의 '공즉시색' 은 또 어떤가. "보석반지는 영롱한 보석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空(공)] "손가락이 들어갈 허공이 있어야만 보석은 비로소 반지가 된다[色(색)]". "빛나는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하는 텅 빈 허공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 정말 기막힌 묘유(妙有)의 '공증시색' (空卽是色)이다.

부처님과 부처님 섬기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필자도 정일근 시인의 이 시를 보면 주눅이 든다. 도무지,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이렇게 공과 색을, 색과 공을 마음대로 시로 주무를 수 있을까. 어설픈 공부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경지다.

어설픈 붓질은 관념을 관념으로 덮어 더 깊은 관념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 그 용어가, 관념이 무슨 관념인지, 뜻인지, 언제 쓰이는지, 어떤 세계인지, 상징인지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정일근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잘 알고 이 시를 썼다.

사실은 〈경주 남산〉 시집 전체가 불교시로 가득 차 있다. 시집 속의 2/3가 불교를 소재로 쓴 작품들이다.

아니, 수많은 석불과 석탑으로 가득 찬 경주 남산 전체를 이 시집으로 옮겨놓았다. 그것도 수밀도처럼 구체적으로 매우 깊게. 이 시집 한 권만 읽어도 경주 남산 왕정골과 절골과 부처바위골과 탑골과 미륵골과 천암골과 철와골과 국사골과 오산골과 대지암골과 쑥드듬골과 승소골과 천동골과 봉화골과 천룡골과 용장골과 비파골과 약수골과 삿갓골과 삼릉골과 선방골과 기암골과 유느리골과 포석골과 장창골과 식혜골 등을 다 답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실제 답사를 가고 싶은 독자는 이 시집을 꼭 한 번 읽고 가기 바란다. 훨씬 밝고 감동적인 답사가 될 것이다.)

같은 시집에 실린 다음의 시들을 보면 정일근 시인이 이 시집 한 권을 펴내기 위해 경주 남산을 얼마나 싸돌아다녔는가(무엇 때문에, 무슨 고통 때문엔 줄은 모르지만, 정일근 시인은 〈후기〉에서 "어려운 때 시집을 묶어준 출판사에 감사한다."고 적고 있다)를 알 수 있다.

정일근 시인이 이 시편들을 쓸 적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위 시에 나오는 "오래지 않아 불혹의 생이 찾아오려니"이다. 40대를 앞두고 정일근 시인에겐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사회적 아픔이었을까, 개인적 아픔이었을까, 삶에 대한 아픔이었을까? 사실 필자도 불혹 직전까지 암흑의 시대를 살았다.

시를 한 편도 쓰지 못할 정도로 우울과 자책과 자학의 시절을 살았다. 정일근 시인과 필자는 동년배인데다, 그 무렵 자주 만나고 살기도 했다. 그 시절, 그 아픔(고통)들은 우리 시대가 감내해야 할 필연적인 아픔(고통)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일근 시인의 〈경주 남산〉을 읽은 몇 해 뒤, 필자도 경주 남산을 답사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이라는 산문집 속에 한 꼭지 넣어 펴낸 바 있다. 정일근 시인,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한 시인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심장·간질환 발병 한달…
생사기로에 선 미얀마 청년

미얀마에서 온 묘민우씨 올해 8월부터 프레스공장에서 근무
심장 수술에 신장기능 50%남아 약물 치료…병원비만 1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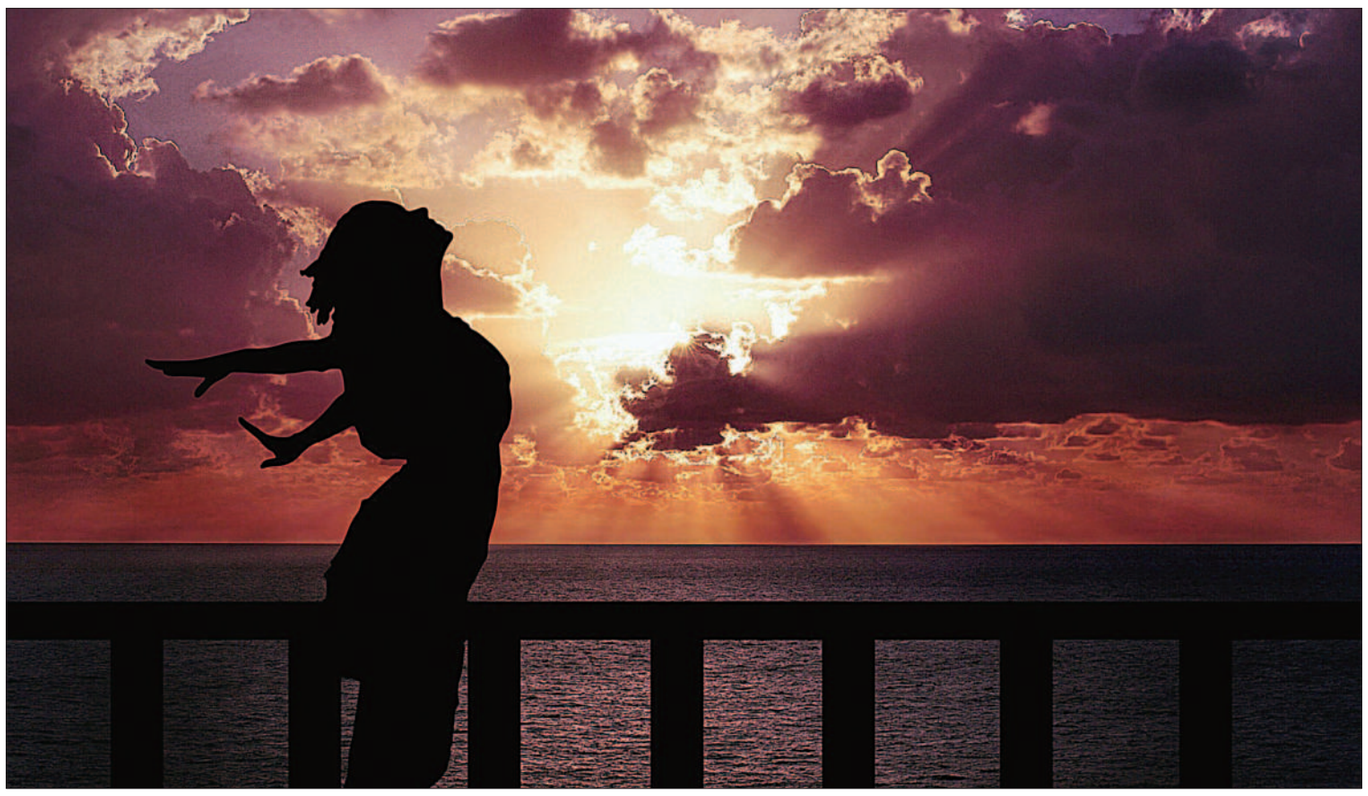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11 호흡의 중요성



▶한줄요약
호흡만 잘해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

# 행복한 삶 원한다면 '내호흡'을 보라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다. 자기 돌봄은 쉽게 말하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피곤할 때 쉬고,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원치 않는 일이나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는 피곤함,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불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삶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때가 많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불쾌한 신체감각이나, 힘든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에 주의가 자동으로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괴로워진다. 이런 때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의를 일단 현재 순간으로 돌려와야 한다. 현재에 주의를 두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현재 순간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한 번에 한가지 정보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주의를 호흡에 두면, 그 순간 힘든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면서 불쾌한 신체감각, 생각,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를 돌보는 가장 적절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호흡 알아차림을 통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고, 명료하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호흡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정 종교나 이념과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수련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몸이 어떻게 숨쉬는지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숨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면서, 숨이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배가 부풀었다 가라앉는 감각, 가슴이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감각, 또는 코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나 촉감 등, 몸에서 숨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부위가 어디인지 가만히 살펴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숨을 선명하게 느끼는 부위로 주의를 가져오고, 들숨과 날숨의 감각을 알아차려 본다. 손을 배에 올려 두고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려도 좋다. 숨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도움이 된다면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는 날숨에 숫자를 붙이면서 호흡을 알아차려도 좋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에 하나, 다시 날숨에 둘, 다섯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한다. 주의가 호흡에서 벗어나서, 어디까지 세었는지 잊었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분 동안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직접 해보라.

이렇게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있을 때 마음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현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의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 있다면,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숨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된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에 하나, 다시 날숨에 둘,~~ 다섯까지 세는 것을 반복해보라. 어지럽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혹은 졸려서 수 세는 것을 놓쳤어도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한다. 숨결을 따라 부드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 그리고 명상을 하면서 주의가 자꾸만 숨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러 저러한 생각들로 떠도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생각은 야생마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어떨 때는 사납게 날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마음이 떠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숨으로 돌려오는 연습을 거듭하면 된다.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 매일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적으로 호흡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훈련을 거치면서 마음은 점차 차분해지고 명료해지며, 자신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에서 어떤 평가나 판단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호흡이 뭔가 잘못되었어." 또는 "나는 잘 안되는 것 같아."라는 판단이 일어난다면, "아! 내가 조금 전의 경험에 대해서 판단했구나~"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하다. 매 순간 쉴 새 없이 판단을 만들어내는 마음에 친절하게 미소 지어주라 그리고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

**호흡에 대한 주의 집중**
**스트레스 감소 효과↑**
**종교 상관 없는 수행법**
**호흡은 삶의 시작이자 끝**

실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 외부 대상뿐 아니라 자신의 현재나 과거의 경험,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좋다-싫다, 옳다-그르다 하는 평가와 판단을 자동적으로 내린다. 그런데 모든 판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부족해." 또는 "나만 불행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사실로 믿는다면, 이후 겪게 될 일들은 그 판단에 사로잡혀 해석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다가오는 기회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호흡을 알아차리는 주의력을 활용하여 판단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고,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해 혹은 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더라도, 그 판단에 사로잡히지 않을 힘이 있다면, 삶은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루 하루 자신의 경험에 대해, 또한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이 일어날 때, 판단이라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 보라. 판단하고 있음에 대해 다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다. '판단'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으로 알아차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호흡 알아차림을 통해 현재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경험을 알아차리는 자각을 키워야 한다. 판단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명상이란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길이 아니다. 하루에 한 호흡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집중해서 하면 그만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동적으로 숨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길고 깊은 숨이 척추 신경을 자극해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진 결과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 작은 실천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반복하면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온 마음을 담아 숨을 쉰다면 현재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명상의 시작이 호흡인 이유는 나의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다한 번뇌를 떨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을 떨치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을 또렷하게 응시할 수 있다. 나의 진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의 핵심은 '온화한 주의 기울이기'다. 모든 생명은 숨을 쉰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쉬고, 타인과 다툴 때도 숨을 쉬고, 딴생각을 할 때도 숨을 쉰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연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것처럼, 호흡에 온화한 주의를 기울이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인생은 자극와 반응의 연속이다. 무언가가 또는 누군가가 우리를 자극하면, 우리는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삶의 위기를 극복한다. 부정적인 자극일수록 주의 집중력은 커지게 마련이다. 때로는 머리끝까지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에 주의를 둘 때는 비평가처럼 냉정할 수도 있고,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친절할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가 취조하는 형사처럼 냉정하고 날카롭게 당신에게 온화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도 긴장하거나 위축되거나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엄마가 아픈 아이를 보살피듯 매 순간의 경험에 부드럽고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떨까. 긴장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더 안정되고 열린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삶의 의미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마지막에 호흡이 남는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숨을 쉰다는 것이다. 자면서 꿈을 꿀 때도 숨을 쉬며, 당신이 현실에서 이루고픈 어떤 꿈을 품었든 일단은 숨부터 쉬어야 한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숨을 쉬지 못한다면 막대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건 삶의 진짜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아에 몰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 몸이 없다면 나는 호흡할 수 없다. 호흡이 삶의 시작이라면 신체는 삶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란 나의 호흡과 신체를 사랑하는 일이다.

염처경(念處經)에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으로 호흡에 깨어있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안다.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쉰다'고 안다.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안다. 그는 '호흡의 전과정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겠다'고 하면서 수련한다. '호흡의 전 과정을 느끼면서 숨을 내쉬겠다'고 하면서 수련한다. 그는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호흡 현상이 고요히 드러나도록 하며 숨을 들이쉬겠다'고 하면서 수련한다.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호흡 현상이 고요히 드러나도록 하며 숨을 내쉬겠다'고 하면서 수련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다. 하루 한 호흡만이라도 정성으로 진심을 다해 알아차려보자. 부처님께서는 호흡만 잘해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방송포교 27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BTN불교TV의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으로
누구나 동참가능합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 사람이 죽고 사는 데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마음의 눈 뜨고 싶어요**

**질문** 이 한세상 태어나서 정말 마음의 눈을 뜨고 생사에 걸림 없이 살고 싶은데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마음에 걸림도 많습니다. 큰스님께선 생활 속의 참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생활 따로 공부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부디 따끔하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옛날에 어느 소년이 말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느 스님한테 가서 있을 데가 없다고 얘길 하니까 그 스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가만히 그 소년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싹이 있어 보여서 소년을 출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산골에서 몇 분 되지 않는 스님네들이 밭을 갈고 해서 곡식을 심어서 살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놀 사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 스님께서는 한 번도 책을 놓고 가르친 예가 없이 항상 말씀으로 그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허망한 것이다. 네가 하는 일도 허망한 것이다. 네가 허망하고 네가 없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것조차도 한 사이가 없느니라." 하셨더랍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을 발견하라." 하고 만날 그 한마디 말씀뿐이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댓 살이 넘으셨습니다. 어느 날 똥지게를 지고서 허둥지둥 허둥지둥 가면서 스님의 말씀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만 돌부리에 채어서 똥지게를 엎어 버리고 말았더랍니다. 그만 엎어져서 이가 부러진 채 뒹굴다가 그래도 일어서서 똥이 묻고 그런 거를 개천가에 가서 다 씻고 부어오른 입을 씻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별안간에 학이 탁 떨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학을 보는 순간에 아픈 생각은 어디로 가고 '아이고! 다른 학은 다 날아가는데 너는 어째서 떨어졌느냐?' 하는 생각에 허둥지둥 가서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더랍니다.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잘 동여매 주고선 숲속에다가 감춰 놓고 생각하기를 '콩을 한 움큼이라도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똥통은 엎어졌겠다, 또 똥은 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똥통을 다시 지고선 한참 되는 길을 되돌아갔는데 입이 터져서 부어오른 것은 스님이 채 못 보시고 괭이자루로다가 얼마나 후려갈겼는지 또 고꾸라졌더랍니다. 고꾸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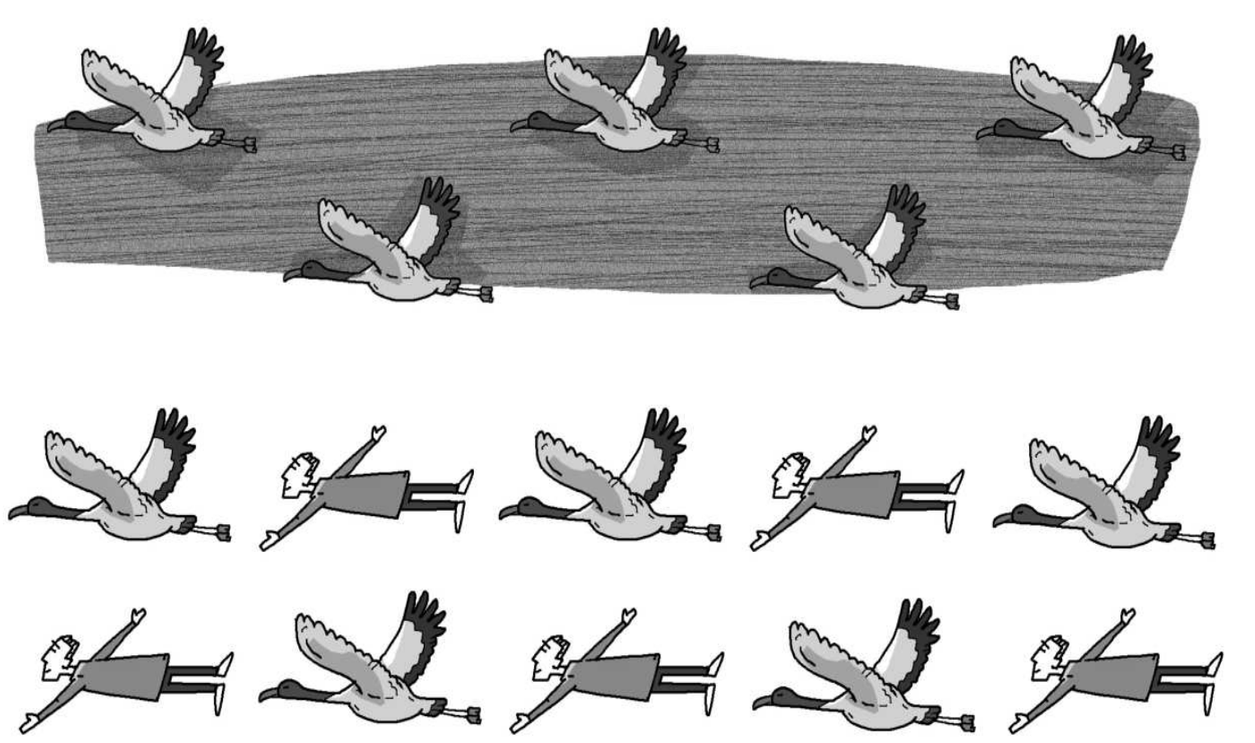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지고도, 입이 붓고 해서 그만 그 사연을 얘기도 못 한 채 맞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겠더랍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그 학이 배고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콩 갖다 줄 생각에 그만 자기가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이빨이 그렇게 됐어도 답변을 해서 좀 노여움을 풀어 드릴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콩을 가지고서 부랴부랴 그 학한테로 갔죠. 콩을 주고서 딱 돌아서는데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스님이 항상 그런 말씀 하신 것이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옳지, 이제는 알았어.' 뭘 알았나 하면은 내가 똥을 지고 올 때도 그렇고 똥을 엎을 때도 그렇고 또 가서 매를 맞을 때도 그렇고, 콩을 갖다 주려고 허둥지둥 뛸 때도 다친 곳이 안 아팠다 이거야. 맞은 것도 안 아팠고. 그랬는데 콩을 갖다 주고선 돌아서서 마음을 턱 놓고 오다 보니까 아픈 데가 너무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스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마음의 조작이로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거기에 몰두가 되니까, 그만 삼매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픈 줄도 몰랐다가 마음을 턱 놓으니까 그렇게 아프고 쑤시고 그럴 수가 없더랍니다. 거기서 홀연히 깨달았고 참, 싱긋이 웃으려니까 그만 입이 부은 것이 또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피가 나오는 것도 모르면서 웃었더랍니다.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학이 나한테 오색 빛깔 구슬을 갖다 줬다' 했습니다.

그 이튿날 너무나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냈으니까 이제 참….' 기쁘기만 해서 그렇게 어렵던 일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매 맞고 욕먹고 하던 것이 하나도 없이 사라졌더랍니다. 사라져 가지고선 똥지게를 지고 그냥 입이 아직 가라앉질 않아서 말은 못 해도 너무나 좋아서 콩을 넣어 가지곤 또 겅중겅중 뛰어갔더랍니다.

콩을 갖다 주고서 막 돌아서려니까 학이 하는 소리가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나는 너의 아버지였는데…." 즉 말하자면 '너의 전자의 은사였느니라' 하는 소립니다. "아버지였는데 내가 너에게 그 구슬을 던져 주고 가기 위해서 학의 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왔으나 나는 학이라는 이 몸을 벗고 이제는 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스러워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아하, 그렇지! 그 구슬을 던져 주셨어, 당신께서.' 그러고 학을 껴안고 엉엉 울다가 "그러면 내가 똥지게를 갖다가 부어 놓고는 또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해라'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삼배를 하면서 갔다가 오니까 학은 간 곳이 없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정감록을 쓴 분이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공중에서 탐지하고 공중으로 정보를 보내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급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무나 급박한 세월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또 이름도 없이 말려서 여기에서 태어나고 저기에서 태어나고…, 차원이 낮게 나고 차원이 높게 나고, 항상 몸을 받아 나와서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처님 되는 것이 십중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처를 만드는 것이지 허공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형상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세워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한도반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드릴 뿐입니다. 그 맛을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그 맛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 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야만 하는 일은 우리들한테 너무나 큰일이며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라서 게을리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뿐이지 누가 속인다 또 안 속인다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귀를 꼭꼭 막고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안 들릴 겁니다. 또 그 귀 막은 것을 떼고서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다 듣게 됩니다. 역시 눈도 그렇습니다. 일체 만물과 이 세상…, 아니, 보물이 수두룩히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고 볼 때는 보이듯이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도리도 모르거니와 그렇게 진기한 문제를 터득할 수도 없고 내가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물질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삼독을 빼 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쁜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항상 자기 내공에 모든 것을, 일체 들이고 내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니 그 생활을 바로

☞ 22면으로 계속



# 한세상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해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자기 내공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면 놓지를 못하고 또 놓지를 못하면 편안치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에서 얼마나 쪼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만 합니까. 한 번 와서 머물렀다가 그냥 가는 길에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이렇게도 한세상 저렇게도 한세상 사는 것이지만 억겁 동안 말리느니, 억겁 동안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를 쓰느니 한세상에 머물렀다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터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벗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두들 물질에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물질을 쓰되 하나도 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서 느끼셔야 될 것입니다.

**자생 중생들을 보살로 화하게…**

**질문** 스님 법문 중에 자생 중생들을 보살로 화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중생들이 보살로 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자생 중생들은 내 마음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엔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은 대로 꼭 고정되게 업을 가지고 있어서 요지부동입니다, 모르니까. 입력에 의해서 입력이 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다가 자꾸 입력을 해서 되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현재에 입력하는 것이 자꾸자꾸 들어가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그 속의 자생 중생들은 그대로 진화되면서 화합니다. 즉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없어지고 새로 들어오는 것만 자꾸자꾸 연거푸 돌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생들, 즉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다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살로 화하게 되면, 수로는 헤아릴 수가 없으리만큼 천백억화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둘 아닌 도리와 더불어 다 앎으로써 나툼까지도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한 까닭에, 본인 하나가 바로 맨 나중에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추구하면서 보살의 정신을 가지고 보살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 한해서 내 중생부터 제도를 다 하고 난 뒤에야 자기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수가 유마힐 거사 병문안을 갔는데 왜 "중생들이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라고 말을 했을까? 내 몸속의 자생 중생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서 건강해야 자기 몸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은 그 말을 듣고 내 몸 중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딴 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자기가 낫는다는 걸로 생각을 하니 얼마나 지혜롭지 못합니까?

나, 나, 나,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상대가 생겼고 세상이 벌어진 거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대가 있으며 어떻게 세상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나로부터죠. 내 악업 선업의 중생들이 다 내 몸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 몸속 작용을 하는 그 중생들부터 제도가 돼야 하겠기에 나는 반드시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이 소립니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하는 고정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정되지 않게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그대로 그대로 거기다 맡기면서 '너밖에 할 수 없다.' 했을 때…, 그리고 '너만이 알아서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기 용도에 따라 닥친 거는 자기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주 알맞고 지혜롭게 거기다가 잘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내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수밖에 없다…' 내일 먹을 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아니, 내일뿐이 아니라 이따가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너만이 먹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신념이 굳을 때는 반드시 먹을 게 오는 것입니다. 여북하면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했겠습니까.

이 중심 하나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중심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 중심의 기능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기능과 그 중심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끼고 돌아가듯, 우리 마음이 바로 지구에 붙어살고 또 지구가 그렇게 붙어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듯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지구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있는 중생들도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길잡이가 이 속의 자생 중생들을 잘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생겨나는 질병도**

**질문**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생겨나는 각종 질병 등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변**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라는 착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四相), 즉 말하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에 대한 착, 또는 육근에 관한 착의 문제가 붙습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했는데 어찌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 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 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자체, 삼합이 공존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산도 아닙니다.
>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둘이 아니며, 그럼으로써 여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가 가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것입니다.

콩나무로 비유를 가끔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참 생명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듯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또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 선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빛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광명 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가 영사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인과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탐지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과목도 바로 인간에게서 주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떡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체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세균도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은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하고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악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저께 일을 알고 있고 작년 일을 알고 있고, 어디서 구경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역시 앞 부처 뒤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자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의 자기 내공에, 즉 말하자면 생명 선 그 자체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보신과 화신 또는 법신 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 육신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다 갖추어서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물부처가 따로 있고 불부처가 따로 있고 흙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찰나찰나 움죽거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만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 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 있는데 내 마음이 대표로서 마음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소임을 맡은 그 생명체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안다면, 자기가 마음을 발견해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컴퓨터나 영사기나 그런 데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바로 미사일에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을 막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어느 거 하나 두렵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도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불논단

# 칠불통계를 다시 생각하다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불교, '연기'란 관계성 법칙 중요시**
**바른 생각, 실천위해 칠불통계 강조**
**일곱 부처님 공히 가르치셨던 계율**

**'내 이익 위해 타인 힘들게 말라'는**
**칠불통계, 불교 지향하는 삶의 모습**
**네트워크 사회인 현재 필요한 金言**
**이태원 참사, 모두의 잘못이자 상처**
**나와 남 모두 이로운 행동이 필요해**

불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관계성의 법칙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이는 한 대상과 다른 대상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 연기법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인연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인연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교에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다. 자신 혼자서 안락하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변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 삶의 실천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더불어 주변에 대한 바른 생각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즉,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율'이라고 한다. 불교의 계율에는 보다 상세한 구분이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칠불통계(七佛通戒)'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6분 부처님이 한결같이 수계하고 가르치시는 계율로서 불교적 삶의 토대이며 완성을 말한다.

칠불통계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로서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로서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칠불통계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기에 그 당연함을 잊기 쉽고, 가볍게 생각하기에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 칠불통계이다. 그렇기에 불교가 무엇인가라는 백거이의 질문에 도림선사도 이 칠불통계를 말하며 세 살 아이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팔십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칠불통계는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온갖 착한 일을 찾아 행하라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인연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나누고 회향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삿된 이익을 위해 자신까지도 속이며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적 삶이라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락해진 요즘에는 오히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더욱 사라져 간다. 풍요와 안락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려 발버둥치고, 다른 사람의 것조차 자신의 것으로 하려하고, 자신의 양심까지도 속이며 작은 잘못조차도 감추려 애쓴다. 이런 삶의 모습에는 인간다운 인연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어질 때이다. 모든 것이 이어져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네트워크로 이어진 현대사회는 인드라망의 인연법이 그대로 적용된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혼자만의 이익이나 면죄부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참혹한 사고를 겪은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나와 무관한 일이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언제라도 우리의 일로 다시금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일상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상대에게 떠넘기고 자신만은 정당하다고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모두의 잘못이고 모두의 상처이다. 언제나 늦은 뒤에 후회를 한다. 이제는 그 후회 뒤에 다음 삶의 모습을 갖추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고, 나와 남이 함께 이로운 일을 찾아 실천하며, 자신을 속이는 일 없이 모든 일에 마음을 두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알아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불교적 삶을 넘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나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토대인 것이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 5대 5의 이치

⑨ 영화 '범죄도시 Ⅰ·Ⅱ'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범죄도시 1'에서 독사(허성태)가 "니 내 누군지 아니"라고 묻자 장첸(윤계상)이 하는 대답이다. 그런가 하면 독사가 "너 누기야"라고 묻자 장첸은 "누구긴 누구야. 빚쟁이지"라고 대답한다. 장첸에게는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 만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상대에게도 자신을 소개할 생각이 없다. 장첸의 관심사는 오직 부채금액과 변제방법밖에 없다.

"너 내 누군지 아니? 하얼빈 장첸이야." '범죄도시 1'에서 장첸이 장이수(박지환)를 칼로 찌르면서 하는 대사이다. 장첸이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는 극악무도한 폭력이 동반될 때인 것이다. 위 대사는 '범죄도시 2'에서 장이수가 강해상(손석구)에게 건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강해상은 어떤 인물일까?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강해상입니다. 내가 한국 온다고 했지. 내 돈 어딨어?"

'범죄도시 2'에서 강해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사채업자인 최춘백(남문철)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장첸과 달리 강해상은 먼저 자신의 이름부터 소개한 뒤 "내 돈 어딨어"라고 묻는다. 강해상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유는 빚을 받으러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강해상이 최춘백에게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는 사람은 최춘백의 아들인 최용기(지우진)이다. 최용기는 강해상에 의해 살해됐다.

장첸과 강해상은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신이 만진 돈, 자신이 가지고 싶은 돈은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여기는 것도 공통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강해상이 더 악랄하다는 것이다.

김형효 교수는 서양철학을 소유론적 철학으로 정의했다. 서양의 언어에는 명사가 발달한 것도 그 실례로 봤다. 김형효 교수는 명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동사적 사고방식을 역설했다. 동사적인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사이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뱅브니스트는 'have' 동사가 피동형으로 안 쓰이는 것에 주목했다.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have'의 의미를 갖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지고 있다"는 한국어에서 알 수 있듯, having과 being은 의미상 같이 동거하고 있다. 이는 유식학의 제8아뢰야식에 중생의 종자와 부처의 종자가 공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관련 김형효 교수는 "being하면 부처가 되고, having하면 중생이 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소유론적 사고로 세상을 보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존재론적 사고로 세상을 보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도식화하면 이 세상에는 소유론적 철학과 존재론적 철학이, having하는 사람과 being하는 사람이, 부처의 종자와 중생의 종자가 5대5로 섞여 있는 것이다.

김형효 교수의 말마따나 have와 be는 이웃사촌이고, 부처와 중생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다.

〈소설가〉

社 說

# '신심 고취 · 포교 진흥' 기대한다

11월 16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50일을 맞았다. 이날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공개 108배를 했다. 사실 진우 스님은 지난 9월 28일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6시 50분경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108배 후에는 진우 스님이 모두 발언과 취재진 차담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취임 5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의 메시지는 '신심 고취'와 '포교 진흥'으로 귀결된다.

진우 스님은 108배를 하며 "'포교로 세상을 편안케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했으며, '어떻게 하면 불교에 대한 신심을 고양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다"고 했다.

제37대 집행부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운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도 '신심 고양'을 위한 종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불교를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해왔는지, 불교가 국교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알아갔으면 한다"는 게 진우 스님의 복안이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매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사찰,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법문하거나 축사를 한다. 모두 불자들에게 신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포교 중흥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진우 스님의 노력이다.

진우 스님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에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 그 끝에는 포교 중흥이 있다.

# 일방통행적 상담사法 제정 안된다

최근 불교계 심리상담단체, 관련 학회 등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로 상담심리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현재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고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증만 43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전문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심리상담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상담사 법안'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리상담사법안'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안'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심리사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전문적인 심리서비스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별 과정 속에 종교 분야와 예술심리상담,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심리치료 서비스가 배제돼 문제가 되고 있다.

11월 12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한국불교상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불교계 상담가 스님, 학자들의 성토가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지난 11월 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임상심리학회와 심리사들은 다른 단체는 쓸모없는 비전문가 취급을 했다"고 토로하며 "다른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불교상담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학만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전공자도 훌륭한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안들은 불교 상담을 비롯한 특성화된 상담들을 모두 '유사심리서비스'로 규정 중이다. 심리상담을 정신병리적 치료에 국한시키는 것은 도리어 국민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정책이다. 정치권은 불교와 종교계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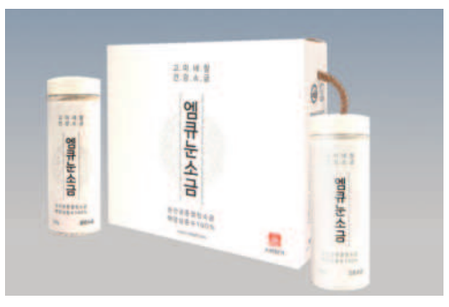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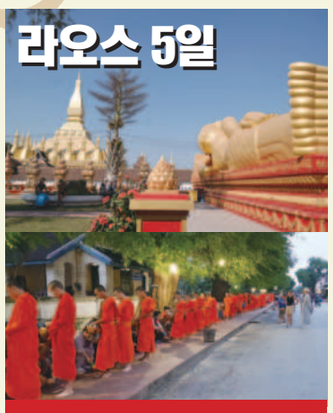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 유쾌하고 즐겁다!"

# 이제 불교국가 모두순례가 가능합니다.




₩ 1,390,000~

순례지
인천-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비엔티엔-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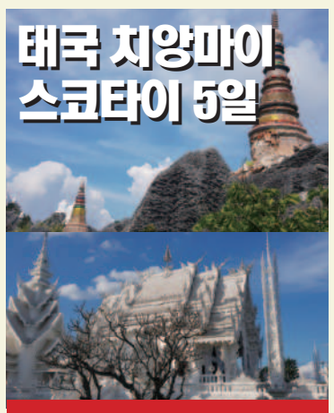
출발일
1/24




₩ 1,690,000~

순례지
인천-하노이-하롱베이-씨엠립 앙코르와트하노이-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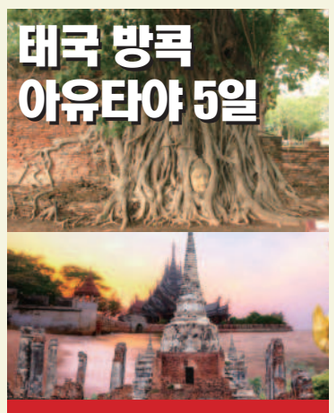
출발일
문의주세요




₩ 1,590,000~

순례지
인천-치앙마이-스코타이-인천

출발일
문의주세요




₩ 1,590,000~

순례지
인천-방콕-아유타야-방콕-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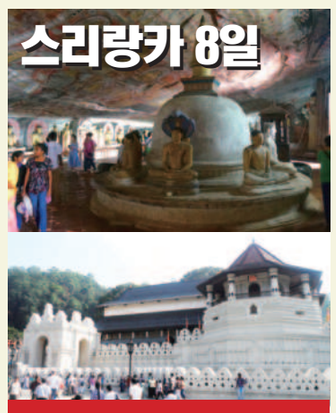
출발일
문의주세요




₩ 1,890,000~

순례지
인천-타이페이-불광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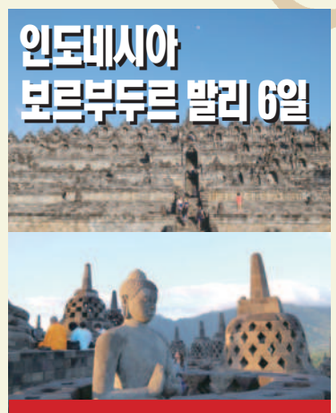
출발일
1/12




₩ 2,790,000~

순례지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아-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켈라니야-콜롬보-인천

출발일
2/22




₩ 2,390,000~

순례지
인천-자카르타 족자르타-보르부두르 발리-인천

출발일
2/13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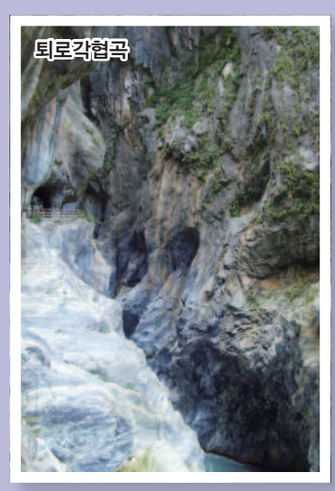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 대만 성지순례 5일

지도법사 : 설오스님
법등사 주지, 유튜브 설오 스님TV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순례기간 : 2023년1월13일 ~ 1월17일(5일)

동참금 : ₩ 1,890,000원 / 현금할인가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30만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주세요.

- 주요일정 :인천-가오슝-불광사-대흥선사-도원(타이페이)-조개-쟈오시-화련-도원-인천
- 입금계좌 : 농협 301-0088-7942-11 예금주 : ㈜케이투어
- 여 권 : 출발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출국가능
  여권사진이 나온 부분을(여권사본) 헨드폰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ajetours@naver.com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